

『醫原』의 燥濕論治에 대한 고찰

又石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殷哲玟 *

A Study on the Treatments of *Yiyuan*(醫原) based on the Concepts of Dryness and Dampness.

Eun Seokmin *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osuk University

Objectives : *Yiyuan*(醫原) written by Shi Shoutang(石壽棠) is well known for its focusing on the concept of dryness and dampness in medical theory. This study was done to analyze the formation process of main academic thought in *Yiyuan*, which included tracing its original sources that had made it possible to construct the main idea in this book.

Methods : Firstly, *Yiyuan* was analyzed in comparison with *Yili*(醫理) by Yu Guopei(余國佩), which is regarded as the main origin of *Yiyuan*. And secondly, many diverse medical theories before Yu Guopei and Shi Shoutang was scrutinized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the construction of dryness/dampness-centered medical theory.

Results & Conclusions : Shi Shoutang took over the main idea of Yu Guopei and expanded it both in 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s. Especially, the most remarkable contribution by Shi Shoutang can be said that he used the astronomical theory which had the concept of multi-layered heaven and intensified the theoretical basis of medical theory emphasizing the significance of dryness and dampness. Besides, Shi Shoutang's medical theory was a thing which was also based on many cumulative assertions about dryness and dampness before him. Yu Jiayan's assertion on dryness and dampness could be acknowledged as the most influential one, and it also could be said that the arguments surrounding the property of dryness had formed the main question in the development of medical theory centered on dryness and dampness.

Key Words : Shi Shoutang(石壽棠), *Yiyuan*(醫原), dryness, dampness

* Corresponding Author : Eun Seokmin.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osuk University, 443 Samrye Rd,

Wanju County, Jeonbuk, ROK
Tel : +82-63-290-1475.

1. 서론

『醫原』(1861)은 清代의 의가인 石壽棠의 저작으로서, 학술적인 면에 있어 六氣 중의 燥와 濕을 제반 병증들의 病機의 양대 강령으로 삼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燥와 濕을 병기의 핵심으로 한 것은 기존의 의학이론들과는 다른 낯선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석수당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도 이와 같은 그의 燥, 濕 중심의 이론체계를 다룬 것들을 주로 찾아볼 수 있다¹⁾. 한편 그의 燥濕論治의 핵심적인 개념이 석수당 자신에 의해 처음 제기된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역시 찾아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余國佩의 저작인 『醫理』(1851)가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²⁾. 비록 『醫原』에서 燥濕論治와 관련하여 여국패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비중 있게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석수당이 燥濕論治와 관련하여 논한 주요 내용들을 여국패의 저작인 『醫理』(1851)에서 상당 부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여국패가 석수당에 미친 영향을 긍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석수당의 燥濕論治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그의 燥, 濕 중심의 이론체계에 대한 대체적

인 정리와 함께 그것이 여국패의 논의를 이어받은 것임을 확인한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이 같은 燥, 濕 중심의 의학이론이 출현하게 된 원인 내지는 그 이전의 관련 논의의 축적에 대한 고찰이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여국패로부터 석수당에 이르기까지 燥濕論治의 이론적 구조가 어떤 모습을 거쳐 형성된 것인지에 대한 분석 역시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즉 燥, 濕 중심의 의학이론이 여국패와 석수당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논의가 어떤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 것이고 기존의 어떤 논의들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논고에서는 『醫原』에 나타난 燥濕論治를 살펴봄에 있어 먼저 여국패의 『醫理』에서 석수당의 『醫原』에 이르는 燥濕論治의 내용을 그 안의 문제의식과 특징적인 주장들을 중심으로 비교, 고찰함으로써 그 논의의 전개과정을 추적하고, 아울러 이들에 의해 燥濕論治의 이론체계가 형성될 수 있기까지 기존에 어떤 논의들의 축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醫理』에서 제기된 燥濕論治의 내용이 『醫原』에 이르러 어떤 형태로 구체화되었고 또한 그 내용이 의학사적인 맥락에서는 어떤 흐름을 통해 이해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의 시각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余國佩의 燥濕論治의 주요 논점

1) 燥, 濕에 대한 余國佩의 문제의식

余國佩는 『醫理』에서 自序에 이은 첫머리에 「六氣獨重燥濕論」이라는 장을 두어 六氣 중의 燥와 濕을 양대 강령으로 하는 기본적인 이유와 그 이론적 의미를 밝혔으며, 이후 「濕氣論」과 「燥氣論」 등을 두어 그의 燥濕論治의 구체적인 면들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가운데 「六氣獨重燥濕論」에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은 여국패가 燥와 濕을 중시하는 이유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E-mail : eskmin@woosuk.ac.kr

Received(25 January 2016), Revised(16 February 2016),

Accepted(17 February 2016).

- 1) 六氣 중의 燥, 濕을 병기의 양대 강령으로 하는 이론체계에 대해 '燥濕論治'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논고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이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醫原』에 나타난 燥濕論治를 다룬 연구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張亞春, 『醫原』中的燥濕理論, 中醫研究, 1995, 8(3), pp.49-50. 杜松, 潘桂娟, 石壽棠『醫原』之學術特色述評, 中華中醫藥學刊, 2009, 27(6), pp.1329-1330. 張再良, 試以燥濕論百病-解讀石壽棠的『醫原』, 中醫文獻雜誌, 2003(1), pp.21-22. 茅曉, 石壽棠“燥濕”論及其臨床應用探討, 中醫雜誌, 2006, 47(8), pp.623-625.
- 2) 이를 언급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周雪梅, 陳雪功, 新安醫家余國佩對燥濕二氣的認識, 北京中醫藥大學學報, 2011, 34(3), pp.151-152. 陳子杰, 鄧慧芳, 翟雙慶, 石壽棠『醫原』學術思想溯源, 中國中醫藥現代遠程教育, 2014, 12(10), p.7. 이 외에 여국패의 燥濕論治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陳亦宜, 陳壽, 新安醫家余國佩對燥邪的認識初探, 中醫藥臨床雜誌, 2004, 16(6), pp.598-599. 汪滬雙, 余國佩燥濕思想評介, 江西中醫藥, 2005, 36(271), pp.5-6.

“사람이 병을 얻음에 특히 燥와 濕의 두 기를 중시하는 것은, 한 해가 가는 가운데 가뭄이나 수해가 있으면 곡식이 반드시 손상을 입으면서 흉년이 들게 되는 것이지, 寒이나 暑가 많음으로 인해 흉년이 드는 경우는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기를 감축하여 병이 드는 것도 또한 그러하다.”³⁾

이 내용을 보면 여국패는 자연계에서 흉년이 드는 원인이 寒暑보다는 가뭄이나 수해에 있다고 보면서, 이 같은 이치를 인체의 질병의 발생에도 동일하게 적용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체의 질병의 병인을 논함에 있어 寒이나 暑, 火보다는 燥와 濕을 더 중시하는 개념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어 여국패는 「六氣獨重燥濕論」에서 燥와 濕이 六氣의 중심이 되는 이치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더 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기에 앞서 그가 이 같은 관점을 가지게 된 실제적인 원인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여국패가 濕의 문제에 대해 강조한 내용을 보면, 그는 「濕氣論」에서 濕이 병이 됨이 가장 많은 데도 사람들이 飢이나 寒을 피하는 것만 알지 濕을 피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濕은 봄여름에 걸쳐 점차 상승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濕으로 인해 병이 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濕이 아래로부터 상승하는 과정에서 몸의 하부로부터 먼저 병을 받고, 濕이 완전히 상승한 상태가 되면 口鼻를 통해 흡입되면서 三焦에 퍼지는 것이라 하였다.⁴⁾ 이어 여국패는 濕으로 인한 병은 그 맥에 반드시 무언가 막힌 듯한 것이 있어 虛寒한 증의 맥으로 잘못 판단하기 쉬우며, 이로 인한 誤治의 해가 크다고 보았다⁵⁾. 그리고 그 치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苦辛한 성미의 약이 지니는 ‘通降’의 효능을 통해 濕으로 인해 막힌 것을 열어 주는 한편, 淡味를 지닌 약으로 滲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淡味는 甘味가 약간 있는 것을 말하며, 하늘의 清肅의 燥한 기와도 같아 濕을 勝할 수 있다고 보았다.⁶⁾ 또한 「濕氣論」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국패가 葉天士를 언급한 것은 그가 濕病의 치법에 관해 葉天士 저작들을 많이 참고한 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⁷⁾.

한편 燥에 의해 병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燥는 秋分 이후에 하늘의 乾金의 기가 점차 땅으로 하강하는데 이 乾金의 肅殺의 기는 金과 火가 어울린 것으로서 만물을 시들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 燥金의 기가 하강하면 肺가 먼저 그 영향을 받게 되는데, 肺는 온몸의 기를 주관하는 臟임에도 그 작용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또 肺가 燥함으로 인한 병증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⁸⁾ 여기에서 여국패는 지적하기를, 그림에도 특히 겨울에 나타나는 燥邪에 의한 많은 병증들을 風寒에 의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면서 辛溫發散의 치법을 쓰거나⁹⁾, 燥邪로 인한 腹痛泄瀉의 증에 溫中香燥의 성미를 지닌 처방들로 理氣止瀉의 치법을 씌므로 인해 환자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¹⁰⁾. 따라서 여국패는 燥邪로 인한

必渴, 模糊不清, 或沈細似伏, 或數滯斷續不勻, 最似虛寒之脈, 誤治害人甚速, 醫家切宜細究.”

- 3) 余國佩. 醫理. 北京. 中醫古積出版社. 1987. p.3. “人之受病, 獨重燥濕二氣者, 如一歲之中偏乾偏水, 禾稼必傷而成歉年, 未見多寒多暑而損歲也. 人之感氣受病亦然.”
- 4) 余國佩. 醫理. 北京. 中醫古積出版社. 1987. p.4. “濕之爲病最多, 人所不覺, 從來但知避寒避風, 不知避濕者, 以其爲害最緩最隱而難察也. 春夏之交, 人惟知地漸潤, 物漸濡, 及至濕氣升騰, 化雲化霧化露化雨, 其象始見, 微則物受其滋, 過則物被其腐, 人受其氣亦然. 自下而升, 故曰, 因于濕者, 下先受之, 漸至升高, 則口鼻吸入, 布于三焦.”
- 5) 余國佩. 醫理. 北京. 中醫古積出版社. 1987. p.4. “病時其脈

- 6) 余國佩. 醫理. 北京. 中醫古積出版社. 1987. pp.4-5. “濕病必用苦辛之品者, 以其性味能通能降, 可以開濕之壅也. 佐淡滲者, 以淡味得天氣之全也. 淡即甘之微者, 淡薄無味, 象天寓有清肅之燥氣, 故能勝濕.”
- 7) 余國佩. 醫理. 北京. 中醫古積出版社. 1987. p.5. “『溫熱指南』如葉氏所指諸濕病均當細究, 究究均可以參.”
- 8) 余國佩. 醫理. 北京. 中醫古積出版社. 1987. p.7. “秋分以後, 天之乾金漸降至地, 則燥金用事矣. ……蓋燥秉乾金肅殺之氣, 金火同宮, 萬物枯萎, 故曰火就燥. ……燥從上升, 肺金先受, 故多從肺家見症, ……肺主一身之氣, 氣滯則機關不利, ……肺燥則不能運布水精, 中宮水液既離四布, 直注下焦, 腹痛泄瀉, 或外溢爲腫.”
- 9) 이에 대해서는 「寒與燥同治論」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는데, 여국패는 겨울에 寒氣가 심할 때 燥火가 寒의 내부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만물이 모두 얼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겨울이야말로 燥火가 가장 왕성한 때라고 본 것이다. (余國佩. 醫理. 北京. 中醫古積出版社. 1987. pp.14-15. “冬月大地寒冰, 若非燥火內濟, 萬物均僵冷而死矣. ……寒最易化火者, 寒月則燥火正旺之時也.”)

증을 다스림에 반드시 潤滑한 성미를 지닌 약을 기본으로 사용하되 苦辛의 성미를 지닌 약을 약간 가하고 甘味의 약을 佐藥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¹¹⁾. 한편 여국패는 「燥氣論」에서 이상과 같은 내용들과 더불어, 燥症에 대해 喻嘉言, 繆仲淳, 劉河間, 柯韻伯, 葉天士, 王文端 등의 학설을 더 참고할 것을 언급하였으며, 나아가 그 자신이 『東醫寶鑑』에서 燥症에 관한 많은 임상 관련 내용을 습득하였음을 밝히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¹²⁾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여국패는 燥와 濕으로 인한 많은 병들을 風寒 등으로 인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나아가 그는 吳又可의 『溫疫論』을 언급하면서 傷寒으로 인한 병증은 극히 드물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³⁾ 이와 같이 그는 風寒에 의한 병증은 극히 드물다고 여기면서 결국 燥와 濕을 위주로 하는 의학사상을 구상하게 된 것이며, 陽邪는 燥를 중심으로 하고 陰邪는 濕을 중심으로 하는 이론체계를 세우게 된 것이다.¹⁴⁾

2) 燥, 濕 중심의 이론체계의 구성

이상과 같이 여국패는 六氣 중의 燥와 濕을 중심으로 하는 의학이론을 주장하면서, 그 논리적 타당성을 밝히기 위해 易學의 이론을 원용하는 한편 「風無定體論」, 「暑病論」의 편을 두어 六氣 상호간의 관

계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六氣獨重燥濕論」에 따르면, 하늘은 乾金에 속하여 그 기가 본래 燥하며 땅은 坤土에 속하여 그 기에 濕이 많다고 하였다. 그리고 해와 달에 대해 덧붙이기를 해는 乾이 坤의 陰氣를 받아 離로 化한 것과 같은 것으로서 ‘火就燥’의 이치로 설명되는 것이며, 달은 坤이 乾의 陽氣를 받아 坎으로 化한 것과 같은 것으로서 ‘水流濕’의 이치로 설명되는 것이라 하였다¹⁵⁾. 이 내용은 곧 하늘과 땅의 기는 각각 燥와 濕이 중심이 되는 것이며, 火와 水(寒)의 기는 燥와 濕의 기로부터 변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여국패는 이와 같은 이치가 이미 魏伯陽의 『參同契』에서부터 드러나고 있음을 밝혀두기도 하였다¹⁶⁾.

하늘과 땅의 기가 燥와 濕이 중심이 되는 것은 또한 1년 중의 기의 승강을 통해서도 설명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릇 燥와 濕의 두 기는 각기 1년의 반씩을 주관하니, 冬至에 陽이 상승할 때가 되면 땅 속의 濕氣도 이미 動하는 것이며, 봄이 되어 (濕이) 점차 승하는 것이 성해지면 땅도 濕潤함이 많게 되어 만물이 液을 머금고 싹이 트게 된다. 여름이 되면 濕이 蒸하는 것이 더욱 심해지면서 만물이 번성하고, 濕이 盛하여 水가 생하며, 이로부터 만물이 윤택하고 습한 여름에는 때로 큰 비가 내리니, 하늘과 땅의 氣化가 剛에서 柔로 바뀌는 것이다. 夏至에 이르러 陰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가 되면 燥氣도 이미 動하는 것이며, 가을이 되어 점차 하강하는 것이 盛해지면 火가 드셨던 것이 서쪽으로 넘어가면서 만물이 쇠하기 시작하니 가지와 잎이 시들게 된다. 겨울이 되면 燥氣가 더욱 심해지면서 땅이 얼어붙고 물이 얼며 이슬이 얼어 서리가 되고 비가 눈으로 변하니, 하늘과 땅의 기가 柔에서 剛으로 바뀌는 것이다.”¹⁷⁾

10) 余國佩. 醫理. 北京, 中醫古積出版社. 1987. p.7. “雖冬末亦多燥邪, 有似風寒爲病. 若誤投辛溫發散, 或見其痛瀉進以溫中香燥之品理氣止瀉, 多致不救.”

11) 余國佩. 醫理. 北京, 中醫古積出版社. 1987. p.7. “燥屬乾澀之象, 治之必用潤滑之品, 剛以柔治, 微加苦辛之味, 苦以勝之, 辛以行水潤燥, 甘味屬濕土, 宜以爲佐.”

12) 余國佩. 醫理. 北京, 中醫古積出版社. 1987. pp.9-10. “燥症每多雜見, 非只前論可盡, 喻嘉言, 繆仲淳, 劉河間, 柯韻伯, 葉天士, 汪文端公, 均有發明, 俱宜參閱. …… 『東醫寶鑑』之法, 燥症散見於諸病. 余醫案多有發明, 可以參考.”

13) 余國佩. 醫理. 北京, 中醫古積出版社. 1987. p.15. “今時傷寒症極少, 吳又可『溫疫論』云之, 傷寒症千百人中一人而已, 陰症又在千百傷寒中之一症, 誠哉至論. 葉氏『指南』一少寒症之治. 此二公已窺破傷寒之誤, 且論治皆以口鼻吸入, 深居募原, 由裏達表方解, 論治在裏者不外三焦立法, 全與傷寒治法迥別, 誠補千古之未發.”

14) 余國佩. 醫理. 北京, 中醫古積出版社. 1987. p.15. “陽邪以燥字爲綱, 陰邪以濕字爲綱, 余故曰六氣以燥濕二氣爲綱領也.”

15) 余國佩. 醫理. 北京, 中醫古積出版社. 1987. p.3. “雖有六氣之名, 不外燥濕二氣所化. 夫天爲乾金, 其氣本燥, 地爲坤土, 其氣多濕. 日得坤之陰, 爻成離, 上麗乎天, 是爲火象, 乾化離. 故曰火就燥. 月得乾之陽, 爻成坎, 是爲水象, 下臨乎地, 坤化坎, 故曰水流濕.”

16) 余國佩. 醫理. 北京, 中醫古積出版社. 1987. p.3. “昔魏伯陽著『參同契』, 以乾坤二卦爲衆卦之父母, 化出坎離爲用, 卽是此意.”

이상의 내용에서 여국패는 1년 중의 기의 승강에 대해 논하기를 봄과 여름은 濕이 상승하는 것을 중심으로 논하였고 가을과 겨울은 燥가 하강하는 것을 중심으로 논하였다. 그 내용 중에 특히 겨울에 이르러 燥함이 더욱 심해지며 땅이나 물이 얼고 서리와 눈이 생성되는 것을 燥氣의 작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나머지 風과 暑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暑는 濕과 熱이 합해진 성격의 것으로 보았고 風은 燥, 濕, 寒, 火의 네 기로부터 化生하는 것으로 보았다¹⁸⁾. 또한 風과 暑에 대해서는 각각 「風無定體論」, 「暑病論」이라는 편을 두어 그 관련 내용을 더 상세히 기술하기도 하였다. 먼저 「風無定體論」에 따르면 燥, 濕, 水, 火의 네 기는 動하지 않으면 陰에 속하고 動하여 風으로 化하면 陽에 속한다고 하였고, 이로부터 燥風, 濕風, 寒風, 暑風 등의 風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¹⁹⁾. 이와 같이 風을 일정한 體가 없이 燥濕寒暑의 네 기로부터 化하는 것으로 본 것은 당시 의가들이 外感을 주로 風寒으로 보는 것에 대한 여국패의 비판적인 시각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²⁰⁾. 이와 같은 시각은 「暑病論」에서도 확인되는데, 즉 여름의 濕과 熱로 인한 暑病을 寒邪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곤 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²¹⁾.

이상과 같이 여국패는 六氣의 변화를 燥와 濕 중심으로 설명하는 한편, 하늘과 땅 사이의 기의 승강에 있어서의 六氣 각각의 開闔의 작용을 논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르면 六氣 가운데 寒과 濕은 闔의 작용에 치우쳐 있고, 燥와 火는 開에 치우쳐 있다. 風과 暑는 開와 闔의 작용을 함께 발휘하는 것으로서, 風은 寒濕을 겸하면 闔의 작용을 주로 하고 燥火를 겸하면 開의 작용을 주로 한다. 그리고 暑는 熱이 많은 경우라면 開의 작용을 주로 하고 濕이 많은 경우라면 闔의 작용을 주로 한다. 이에 따라 여국패에게 있어 병을 다스린다는 것은 六氣의 변화에 따른 開闔의 이치를 살핀 다음 약의 氣味에 따른 升降과 補瀉의 작용을 적절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²⁾

3. 燥濕論治에 대한 石壽棠의 체계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국패가 임상에서 지녔던 문제의식은 燥, 濕 중심의 의학이론이라는 결과물을 낳았다. 그 과정에서 여국패는 이론체계의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 간략하게나마 易學의 원리를 인용하여 六氣가 기본적으로 燥와 濕으로부터 化生함을 말하였고, 하늘과 땅 사이의 기의 승강의 변화를 燥와 濕 중심으로 논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석수당의 『醫原』에 나타난 것들과 비교해 볼 때, 『醫原』에서 먼저 느낄 수 있는 점은 석수당이 여국패가 『醫理』에서 말했던 내용들을 상당 부분 인용하는 한편 그에 덧붙여 燥와 濕을 중심으로 하는 논의의 이론적 기초를 강화하면서 그 논리에 근거하여 더 구체화된 임상이론을 전개했다는 것

17) 余國佩. 醫理. 北京. 中醫古積出版社. 1987. p.3. “夫燥濕二氣各主一歲之半, 冬至陽升, 地中濕氣已動, 交春漸升盛, 故地多濕潤, 萬物含液, 萌芽包漿, 一交夏令, 濕蒸之氣更甚, 萬物繁茂, 濕盛水生, 故礎潤溽暑, 大雨時行, 天地之氣化剛爲柔. 夏至陰從天降, 燥氣已動, 交秋漸降, 故大火西流, 萬物始衰, 枝枯葉落, 一交冬令, 燥氣更烈, 地凍水冰, 露結爲霜, 雨化爲雪, 天地之氣柔化爲剛.”

18) 余國佩. 醫理. 北京. 中醫古積出版社. 1987. p.3. “暑者, 濕與熱所釀成. 風者, 四氣化生之動象, 摩蕩于天地之間, 所以化生萬物者也.”

19) 余國佩. 醫理. 北京. 中醫古積出版社. 1987. p.10. “蓋燥濕爲先天之體, 水火乃後天之用, 乾坤化出坎離也. 此四者未動處皆屬陰, 既動即化風而屬陽, 故曰風屬陽邪. 西方燥氣動必旱, 故曰燥風, 東方濕氣動必雨, 故曰濕風, 北方寒氣動必冷, 故曰寒風, 南方暑氣動必熱, 故曰暑風.”

20) 余國佩. 醫理. 北京. 中醫古積出版社. 1987. p.11. “今人見外感輒曰風寒, 皆未明風之爲變無定也.”

21) 余國佩. 醫理. 北京. 中醫古積出版社. 1987. pp.11-12. “暑病即濕與熱互釀爲害, …… 既爲病必須分別濕多熱多, 治

最不易. 古有陰暑陽暑之稱, 最能混人耳目, 往往暑月惡寒, 吐瀉, 腹痛, 頭身均疼等證, 誤以陰暑爲治, 投以溫劑, 遺害甚多, 殊不知前之見症, 皆濕勝耳, 非屬寒邪.”

22) 余國佩. 醫理. 北京. 中醫古積出版社. 1987. p.5. “夫天地之間, 其機猶橐籥之開闔, 時時不息, 故能變化萬物. …… 六氣之中, 寒濕偏于闔, 燥火偏于開, 風與暑有開有闔, 風兼于寒濕則闔, 風兼于燥火則開. 暑氣亦宜分別熱多濕多, 偏于熱者多開, 偏于濕者多闔. 治病之法, 但能體認六氣之偏, 開闔之理, 再能分別藥體氣味溫涼升降補瀉之劑, 投之得當, 其應如響.”

이다. 석수당은 질병의 발생에 있어 燥와 濕이 중심이 됨을 보다 설득력 있게 논하기 위해 당시의 天文 이론을 원용한 이론체계를 구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조금 더 체계적인 燥濕論治의 내용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석수당의 燥濕論治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그가 천문이론을 인체에 적용하여 이론적 기초를 다진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 燥濕論治의 실제적인 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천문이론을 인체에 적용한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석수당이 天地의 구조와 운행에 대한 논의를 통해 燥와 濕의 변화를 설명한 내용을 살펴본 다음, 이어 天地 운행에 대한 사유가 반영된 그의 인체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天文이론을 통한 이론적 기초의 구축

(1) 天地의 구조와 운행에 대한 논의

석수당은 『醫原』의 첫머리에 「人身一小天地論」이라는 이름의 편을 두어, 인체가 하나의 작은 天地로서 天地의 운행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논하였다. 이는 곧 사람의 몸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天地에 대해 잘 알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며²³⁾, 그 내용에서 석수당은 하늘과 땅의 전체적인 구조와 그 안의 별들의 운동을 설명하는 한편 이를 인체에 類比적으로 연결시키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같은 논의는 결국 그가 六氣에서 燥와 濕을 강조함에 있어서의 이론적 기초로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人身一小天地論」에 나타난 내용은 이어지는 편들에서 진행되는 더 구체적인 논의들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선 그 내용 가운데 먼저 天地의 구조 및 별들의 운동에 대해 논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한다. 석수당은 이 내용을 논함에 있어 그 서두에서 朱熹의 논의를 인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朱子是 이르기를, 땅은 하늘의 중앙에 자리하여 動하지 않는 것이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

늘이 땅을 감싸고 있는 것은 새의 알이 노른자를 품고 있는 것과도 같다. 하늘은 크고 땅은 작으며, 表와 裏가 다 水이다. 땅은 地球라고 하며 하늘이 둥글듯이 땅도 역시 둥근데, 땅에 대해 ‘地方’이라 하는 것은 땅의 德이 方하여 高요히 하늘을 따른다는 의미이다.) 하늘에 一息만큼이라도 멈춤이 있다면 땅은 아래로 꺼져버리고 말 것이다. 이것이 하늘이 땅을 감싸고 있다는 것의 의미이다.”²⁴⁾

이 내용은 석수당이 하늘과 땅의 생성과 운동에 대한 朱熹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에 대한 자신의 설명을 덧붙인 것이다. 여기에 인용된 주희의 말은 『朱子語類』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석수당이 『朱子語類』에서 일부 구절을 선택적으로 가져온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地居天中央不動, 不是在下”의 부분은 “天地初間只是陰陽之氣. 這一箇氣運行, 磨來磨去, 磨得急了, 便拶許多渣滓, 裏面無處出, 便結成箇地在中央. 氣之清者便爲天, 爲日月, 爲星辰, 只在外, 常周環運轉. 地便只在中央不動, 不是在下.”²⁵⁾라 한 것에서 끝부분에 있는 “地便只在中央不動, 不是在下”의 부분을 가져오면서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使天有一息之停, 則地須陷下”라 한 부분은 앞의 내용에 이어 나오는 부분에서 “天運不息, 晝夜輾轉, 故地推在中間. 使天有一息之停, 則地須陷下. 惟天運轉之急, 故凝結得許多渣滓在中間. 地者, 氣之渣滓也, 所以道輕清者爲天, 重濁者爲地.”²⁶⁾라 한 것으로부터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주희의 논의 사이에 자신의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였는데, 즉 하늘이 땅을 감싸고 있는 것은 새의 알이 노른자를 품고 있는 것과도 같으며²⁷⁾, 땅의 德

23) 石壽棠, 醫原. 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1. “人稟陰陽五行之氣, 以生于天地間, 無處不與天地合. 人之有病, 猶天地陰陽之不得其宜, 故欲知人, 必先知天地.”

24) 石壽棠, 醫原. 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1. “朱子曰, 地居天中央不動, 不是在下. (天之包地, 如鳥卵之含黃. 天大地小, 表裏皆水. 地名地球, 天圓而地亦圓, 曰地方者, 謂地之德方, 靜而承天者也). 使天有一息之停, 則地須陷下. 此天包乎地之義也.”

25) 허택, 이요성 역주. 주자어류1. 서울. 창계. 1998. p.108.

26) 허택, 이요성 역주. 주자어류1. 서울. 창계. 1998. p.110.

27) 하늘이 땅을 감싸고 있는 구조를 새의 알에 비유한 부분은 일찍이 『宋書』의 「天文篇」에서 찾아볼 수 있다. 沈約. 二十五史 宋書. 서울. 경인문화사. 1975. p.179. “前儒舊說, 天地之體, 狀如鳥卵, 天包地外, 猶殼之裹黃也.”

이 方하여 高요히 하늘을 따르고 있음을 말하였다. 이 같은 논의들을 통해 석수당은 하늘이 땅을 감싸고 있는 구조로 이 세계가 이루어져 있음을 말한 것이다.

석수당은 하늘이 땅을 감싸고 있는 구조를 논한 데 이어 하늘이 重層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말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늘에 아홉 층이 있는 것을 살펴보면, 가장 위쪽의 한 층은 宗動天으로서 左旋하고, 그 안의 여덟 층의 天(恒星天, 土星天, 木星天, 火星天, 太陽天, 金星天, 水星天, 太陰天)은 右旋하지만 날이 감에 따라 宗動天을 따라 左旋하게 된다. 이 宗動天은 곧 一氣가 여럿의 움직임을 營運하는 으뜸이다.”²⁸⁾

이 내용에 따르면, 하늘은 아홉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운데 가장 위에 위치하는 宗動天은 左旋운동을 하고 그 아래의 층들은 右旋운동을 하는데, 右旋운동을 하는 층들은 결국 宗動天을 따라 左旋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즉 아래의 여덟 층의 운동은 기본적으로 右旋 방향의 것이지만 宗動天의 영향으로 左旋 방향의 힘을 크게 받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宗動天은 모든 층의 하늘의 움직임을 주재한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여기에서 宗動天을 비롯한 아홉 층의 하늘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이론체계는 서구 천문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중국 천문학에서 하늘을 거둬진 층의 구조로 설명하는 논의는 본래 주희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주희도 역시 하늘이 아홉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개념은 그가 屈原의 楚辭에 나오는 ‘九天’의 개념을 구조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다²⁹⁾. 屈原은 「離騷天問」에서 “圓則九重,孰營度之?”³⁰⁾, “九天之

際, 安放安屬? 隅隈多有, 誰知其數?”³¹⁾라 하여 ‘九重’, ‘九天’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가운데 ‘九重’이라는 표현에 대해 朱熹는 이를 하늘이 아홉 층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며, 이는 ‘九天’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朱子語類』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면 朱熹는 ‘九天’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주석들을 비판하면서 ‘九天’을 ‘九重’의 의미와 동일시하고 있다³²⁾. 주희가 말한 아홉 층의 하늘은 기가 층을 이뤄 旋轉하고 있는 형태를 지닌 것으로서, 『楚辭集注』에 따르면 주희는 이에 대해 “아홉 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땅의 바깥으로부터 기가 旋轉함에 따라 멀어질수록 더욱 크고 맑아질수록 더욱 剛한 것이며, 陽을 헤아리는 가장 큰 수인 九에 이르면 지극히 맑고 剛해져서 더 이상의 끝이 없는 것이다.”³³⁾라고 하였다. 주희가 말하는 아홉 층의 하늘의 실체는 각각의 층에서 旋轉하고 있는 기인 것이며, 아래로부터 위로 갈수록 점점 더 剛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가장 위층으로 가면 단단한 껍질과도 같다고 본 것이다.

한편 서구의 천문학에서는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하늘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학설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가장 바깥쪽에 하늘이 회전할 수 있는 동력을 갖춘 宗動天이 자리하고 그 아래로 여덟 층의 하늘이 동심구 형태로 자리하며 중심에 움직이지 않는 지구가 자리한다는 개념을 가진 것이었다. 이후 서구의 천문학에서 하늘의 층의 수는 세차율이나 황도경사각 등에 관련된 천문이론의 등장에 따라 일정한 변화를 거치게 되는데, 이를 거치면서 결과적으로 아홉 층의 하늘로 정리되는 것이 보편화된 것은 티코 브라헤(1546-1601) 이후의 17세기 후반의 일이다³⁴⁾. 이러한 서구의 우주론은 이

31) 朱熹. 楚辭集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1. p.51.

32) 허탁, 이요성 역주. 주자어류 권2. 서울. 청계. 1998. pp.208-209. “離騷有九天之說, 注家妄解, 云有九天, 據某觀之, 只是九重, 蓋天運行有許多重數, 裏面重數較軟, 至外面則漸硬, 想到九重, 只成硬殼相似, 那裏轉得又愈緊矣.”

33) 朱熹. 楚辭集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1. p.51. “其曰九重, 則自地之外, 氣之旋轉, 益遠益大, 益益清剛, 究陽之數至于九, 則極清極剛, 而無復有涯矣.”

34) 전용훈. 17세기 서양 세차설의 전래와 조선 지식인의 반응. 한국실학연구. 2010. 20. p.371.

28) 石壽棠. 醫原. 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2. “考天有九重, 最上一重爲宗動天, 左旋, 其內八重天(恒星天, 土星天, 木星天, 火星天, 太陽天, 金星天, 水星天, 太陰天), 右旋, 逐日爲宗動天裹之左旋. 是宗動天者, 乃一氣營運群動之宗也.”

29) 아마다 케이지 저. 김석근 역. 주자의 자연학. 서울. 통나무. 1991. p.146.

30) 朱熹. 楚辭集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1. p.50.

후 중국에 전해져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학자들은 유리처럼 투명한 물체로서의 천구라는 서양의 관념은 거부하면서 기가 旋轉하고 있는 형태로의 하늘이라는 관점을 유지하고자 하였다.³⁵⁾

석수당이 말한 하늘의 층층의 구조와 그 운행은 이상과 같은 천문이론의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역시 하늘의 구조와 운행에 대해 서구 천문학의 영향을 받은 宗動天 등의 개념을 말하였지만 이 같은 하늘의 개념은 곧 그가 “宗動天은 곧 一氣가 여럿의 움직임을 營運하는 으뜸이다.”라고 하였듯이 하늘을 여러 겹의 기의 층으로 본 것이었다. 하늘과 땅의 구조 및 하늘의 운행에 대한 이와 같은 논의는 그가 燥와 濕을 중심으로 하늘과 땅 사이의 기의 변화를 설명하고 이를 인체에 적용하는 데 있어 이론적 기초가 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2) 천지의 운행에 따른 燥, 濕의 발현

석수당은 「人身一小天地論」에서 하늘과 땅의 구조 및 운행에 대해 이상과 같은 정도로 간략히 논하였고, 이 같은 구조를 바탕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서 燥와 濕이 발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百病提綱論」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논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宗動天은 비어 있는 채로 아무 것도 없으며 비어 있는 것은 純陽이 된다. 宗動天은 가장 높은 것이며, 높이 있는 즉 운행하는 것이 繁하면서 健하니 이 역시 純陽이 된다. 陽의 精은 日이고 日은 眞火인데, 金位의 아래에서 火氣가 이를 承한다고 하였으니 天이 陽에 속하고 燥 역시 陽에 속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宗動天 아래의 八重天에서 星은 少陰이 되고 月은 太陰이 되며, 眞陽의 아래에서 眞陰이 이를 承한다고 하였으니 陽이 陰을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늘의 燥한 氣가 하강할 때에는 반드시 陰氣를 품고 내려오며, 燥熱이 본이 되고 (燥로 인해 熱한 것이므로 燥熱이라 하지 熱燥라 하

지 않는다) 寒燥가 變이 된다 (寒으로 인해 燥한 것이므로 寒燥라 하지 燥寒이라 하지 않는다). 陰의 精은 月이 되니 月은 眞水이며, 水가 月에 응해 땅에서 생겨나니 땅은 陰에 속하고 濕도 또한 陰에 속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땅은 하늘 가운데 자리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땅의 陽氣는 즉 하늘의 陽氣인 것으로서 陰이 陽을 따르게 되니 陰이 陽을 承한다고 한다. 이에 땅의 濕氣가 상승할 때에는 반드시 陽氣에 의지하여 升하게 되며, 寒濕이 본이 되고 (寒으로 인해 濕이 되므로 寒濕이라 하지 濕寒이라 하지 않는다) 濕熱이 變이 된다 (濕으로 인해 熱이 되므로 濕熱이라 하지 熱濕이라 하지 않는다).”³⁶⁾

이상의 내용에 따르면, 宗動天은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여 純陽이 되는 것으로서 그 운행이 繁하고 健한 것이다. 여기에서 宗動天의 운행이 ‘繁’하고 ‘健’하다고 한 것은 주위가 가장 높은 층에 있는 하늘에 대해 극히 ‘剛’하다고 표현한 것과 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宗動天의 아래에 陽의 精으로서의 해가 자리한다고 하였는데, 석수당은 이를 眞火라 하는 한편 乾金에 해당하는 宗動天의 아래에서 이를 承하는 존재로서의 火로 보았다. 이에 따르면 宗動天과 해는 각각 燥와 火의 氣를 주관하게 되는 것이다. 즉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宗動天은 그 운행이 繁하고 健하여 결과적으로 燥의 기를 발현하게 되는 것이며, 그 아래에 있는 陽의 精으로서의 해는 眞火로서 火의 기를 주관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석수당은 宗動天의 아래에 있는 하늘에서 星들이 少陰이 되고 달이 太陰이 된다고 하였으며, 이를 두고 眞陽의 아래에서 眞陰이 이를 承하

36) 石壽堂. 醫原. 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p.32-33. “宗動天, 空洞無物, 無物爲純陽. 宗動天最高, 高則轉得繁, 行得健, 繁而健亦爲純陽. 陽之精爲日, 日爲眞火, 金位之下, 火氣承之, 天屬陽, 燥亦屬陽, 固也. 然宗動天以內之八重天, 星爲少陰, 月爲太陰, 眞陽之下, 眞陰承之, 故曰陽含陰. 所以天之燥氣下降, 必含陰氣以降, 燥熱爲本 (因燥而熱, 故曰燥熱, 不曰熱燥), 寒燥爲變也 (因寒而燥, 故曰寒燥, 不曰燥寒). 陰之精爲月, 月爲眞水, 水應月而生于地, 地屬陰, 濕亦屬陰, 固也. 然地居天中不動, 地之陽氣, 即天之陽氣, 陰隨乎陽, 故曰陰承陽. 所以地之濕氣上升, 必藉陽氣乃升, 寒濕爲本 (因寒而濕, 故曰寒濕, 不曰濕寒), 濕熱爲變也 (因濕而熱, 故曰濕熱, 不曰熱濕).”

35) 야마다 케이지 저. 김석근 역. 주자의 자연학. 서울. 통나무. 1991. p.147.

는 것이라 하였다. 이상과 같이 宗動天으로부터 그 아래의 海, 星, 달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陽이 陰을 감싸고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석수당이 이를 두고 金位の 아래에서 火氣가 이를 承한다고 한 것과 眞陽의 아래에서 眞陰이 이를 承한다고 한 것은 모두 『素問 六微旨大論』에서 “金位之下, 火氣承之, 君火之下, 陰精承之”³⁷⁾라 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기에서 金位와 火氣는 각각 宗動天과 海에 해당하는 것이고, 君火와 陰精은 海와 달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땅에서는 陰의 精인 달에 응해 濕이 생겨나며, 또한 땅의 陽氣는 즉 하늘의 陽氣가 깃들어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최상층의 하늘은 燥를 주관하고 땅은 濕을 주관하며, 하늘 아래의 陽의 精으로서의 海는 火를 주관하고 또 그 아래의 陰의 精으로서의 달은 水를 주관하는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燥와 濕의 氣는 이상과 같은 하늘과 땅의 구조를 바탕으로 발전하는 것이며, 하늘의 燥한 氣가 하강하고 땅의 濕한 氣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陰陽의 互藏에 따른 기의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燥熱, 寒燥, 寒濕, 濕熱 등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하늘에는 宗動天의 燥한 기와 海의 火가 있어 燥熱이 본이 되지만, 燥한 氣가 하강할 때 陰氣를 품고 내려오면서 變으로서의 寒燥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땅에는 濕한 氣가 있어 寒濕이 본이 되지만, 濕한 氣가 상승할 때 陽氣에 의지함에 따라 變으로서의 濕熱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석수당은 하늘과 땅의 구조 및 운행에 대한 논의를 통해 燥와 濕이 중심이 되는 기의 승강 및 변화를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天地의 운행과 인체의 상관성

석수당은 天地의 구조와 운행에 대한 관점을 인체에도 類比적으로 적용하는 논의를 펼쳤는데, 이에 따르면 그는 인체 내에서 膈膜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을 하늘로 보고 그 이하를 땅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틀 안에서 膈膜 이상에는 肺와 心, 心包絡이

있고, 膈膜 이하에는 肝, 膽, 脾, 胃, 小腸, 大腸, 腎, 三焦, 膀胱이 속한다.³⁸⁾ 이 부분에서 석수당은 또한 『素問 六微旨大論』에서 天樞를 기준으로 天氣와 地氣의 영역을 나눈 것을 언급하고는 있지만³⁹⁾, 그 자신이 『素問』을 따르지 않고 膈膜을 구분의 기준으로 삼은 것에 대해 이를 氣의 輕淸한 부분이 하늘이 되고 氣의 重濁한 부분이 땅이 되기 때문이라는 논리로 설명하였다.⁴⁰⁾ 이는 역시 朱熹의 논의를 빌어 와 자신의 관점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하늘과 땅의 구조를 논함에 있어 땅이 고요히 하늘을 따르는 것이라 했듯이 地氣가 전적으로 天氣에 의해 營運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석수당은 臟腑의 기능적인 면을 논함에 있어 肺를 하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 胃를 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肺는 臟腑 중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여 마치 宗動天과도 같이 인체의 하늘로서 작용하는 것으로서, 각 臟腑의 本氣가 스스로 움직이는 바가 있다 하더라도 한편으로 이 모든 것이 肺의 氣를 따라 움직인다고 하였다. 이는 앞에서 여러 층의 하늘이 宗動天을 따라 움직인다고 한 것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膈膜 이상에 자리하여 肺와 함께 하늘에 속하는 心은 海와 같은 것이 되는데, 海가 하늘에 매여 있듯이 心이 肺에 매여 있는 것이 된다.⁴¹⁾ 그리고 腎은

38) 石壽棠, 醫原, 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1. “以人言之, 膈膜以上, 肺與心與心包絡, 象天, 膈膜以下, 肝膽脾胃小腸大腸腎三焦膀胱, 象地.”

39) 『素問 六微旨大論』에 따르면 “帝曰, 何謂氣交? 岐伯曰, 上下之位, 氣交之中, 人之居也. 故曰, 天樞之上, 天氣主之, 天樞之下, 地氣主之, 氣交之分, 人氣從之, 萬物由之. 此之謂也.”라고 하였다. 黃帝內經素問,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7. p.110.

40) 石壽棠, 醫原, 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p.1-2. “經云, 天樞(膈穴)以上, 天氣主之, 天樞以下, 地氣主之, 是以天樞居腹之中間者言之也. 余以膈膜上下分天地者, 以氣之輕淸者爲天, 氣之重濁者爲地言之也. 然膈膜以下, 主之者地氣而統之以營運者, 實皆天氣.”

41) 石壽棠, 醫原, 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p.2-3. “居于至高, 一呼一吸, 與天氣相通, 體極輕虛, 用主肅降, 肺固人之天也. 不獨肺之本臟爲天, 凡臟腑間經絡及內外空竅之能通氣者, 皆莫非天. 雖各臟腑之經絡空竅, 有各臟腑之本氣以營運, 如七政本天之營運一般, 而要皆隨肺氣以營運, 皆爲肺氣所貫通, 肺固人之宗動天也. 故曰, 肺主天氣. 肺氣故名宗氣, 又名大氣. 地居天中, 人在氣中, 天包乎地, 氣包乎質,

37) 黃帝內經素問,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7. p.108.

하늘의 氣가 땅 속에 蘊蓄된 것으로서, 水穀의 海로서 의 胃의 發育이 腎의 眞陰, 眞陽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았다.⁴²⁾

석수당은 臟腑들 가운데 肺, 胃, 腎을 하늘과 땅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臟腑로 본 것이며, 이와 같은 관점을 기초로 각 臟腑의 기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릇 하늘의 眞陰과 眞陽이 땅 위로 발하여 만물을 생하게 하니, 실로 땅 속에 감추어져 있으면서 만물이 이로 말미암아 생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의 몸에서 肺의 眞陰은 아래로 腎으로 내려가 水가 되고 肺의 眞陽은 아래로 腎으로 들어가 火가 되니, 이른바 땅이 하늘 안에 자리하고 하늘이 땅을 감싸고 있는 것과도 같다. 두 腎의 사이를 命門이라 하니, 사람의 몸의 뿌리가 되는 것으로서 一陽이 二陰의 사이에 감추어져 있으며, 水와 火가 서로 집이 되는 것이 卦에서의 坎卦와도 같다. 肺는 한번 내쉬고 한번 들이쉬는 사이에 허리 쪽의 腎氣와 숨결 하나하나마다 서로 통하니, 이에 經에서 腎이 위로 肺에 연결된다고 한 것이다. 脾의 경우는 땅 위에 있는 제방의 흙과도 같으며, 胃로부터 精을 퍼트려 위로 肺에 이르게 하는 것일 따름이다. 肝은 땅 위의 나무와도 같으며, 땅 속의 生發의 氣를 樞轉하는 것일 따름이다. 六經은 川과 같고 腸胃는 海와 같으니 땅에서의 涇渭와도 같아 淸濁을 구분하여 운행시키는 것일 따름이다. 이로부터 보건대 사람의 몸은 실로 하나의 작은 天地가 아니겠는가! 肺, 腎, 胃야말로 또한 사람의 몸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아니겠는가!”⁴³⁾

天地與人, 同一理也. 夫在天則有日, 在人則有心, 心系于肺, 猶日系于天. 天爲陽, 日爲陽之精, 肺氣爲陽, 心爲陰中之太陽.”

42) 石壽棠. 醫原. 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7. “若夫地固承天者也, 地氣不上騰, 則天氣不下降. 胃固人之地氣也, 腎乃天氣蘊蓄于地中者也. 胃爲水穀之海, 又爲倉廩之官. 胃之發育, 又藉腎之眞陰眞陽以爲發育者也. 經故曰, 腎爲胃關.”

43) 石壽棠. 醫原. 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8. “夫天之眞陰眞陽, 發于地上, 以生萬物, 實藏于地中, 而爲萬物所由生. 人身肺之眞陰, 下布于腎而爲水, 肺之眞陽, 下納于腎而爲火, 所謂地居天中, 天包乎地也. 兩腎中間, 名曰命門,

위 내용에 따르면 腎과 命門 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감이 있지만, 腎과 命門은 큰 틀에서 볼 때 肺의 天氣가 땅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腎과 命門으로부터 胃가 發育의 힘을 얻는 가운데, 脾가 胃로부터 精을 퍼트리니 肝이 生發의 氣를 樞轉할 따름이라고 함은 결국 脾와 肝의 역할이 腎과 命門을 돕는 보조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인식하는 셈이다. 즉 肺, 腎과 胃가 하늘과 땅에 대응되는 중심적인 臟腑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2) 燥濕論治의 구체화

석수당은 『醫原』에서 여국패의 『醫理』에서와 같이 「濕氣論」과 「燥氣論」의 두 편을 묶음으로써 그의 燥濕論治의 구체적인 면들을 설명하였다. 석수당의 「濕氣論」과 「燥氣論」은 여국패의 것에 비해 그 내용이 매우 풍부해진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 더 체계화된 개념을 바탕으로 임상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담고자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석수당이 『醫原』에서 濕과 燥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더 체계화했다고 볼 수 있는 점은 濕과 燥 각각을 ‘本氣’와 ‘化氣’의 개념으로 나누어 설명했다는 것이다. 즉 濕과 燥를 중심으로 하는 석수당의 임상 이론은 濕과 燥 각각의 本氣와 化氣의 개념을 기초로 하면서 外感과 內傷을 구분하고 또 손상된 부분이 天氣와 地氣 내지는 表와 裏, 氣分과 血分 중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선 석수당이 濕과 燥의 개념을 각각 本氣와 化氣로 나누어 논한 것을 살펴보는 한편, 그가 당시에 임상에서 느꼈던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이를 濕과 燥의 개념을 중심으로 풀어보고자 했던 몇 예들을 통해 그의 燥濕論治의 실제적인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爲人身之根柢, 一陽藏于二陰之中, 水火互宅, 在卦爲坎. 肺一呼一吸, 與腰間腎氣息息相通, 經故曰, 腎上連肺. 至于脾, 猶地上堤防之土, 爲胃散精以上輸于肺者耳. 肝猶地上之木, 以樞轉地中生發之氣者耳. 六經爲川, 腸胃爲海, 猶地之有涇渭, 運淸而行濁者耳. 由此觀之, 人身不誠一小天地哉! 肺也, 腎也, 胃也, 非又人身所最重者哉!”

(1) 濕의 證에 대한 논의

석수당은 濕이 土에서 생하는 것으로서 그 本氣가 陰에 속하며, 陰에서 생하는 것으로서의 濕의 本氣라 함은 곧 寒濕을 말하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濕의 本氣는 점차 濕熱로 化할 수 있는데, 이는 곧 濕의 本氣가 陽氣의 힘을 입어 상승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석수당은 이를 濕의 化氣라 하였다.⁴⁴⁾ 濕의 化氣는 대부분 口鼻를 통해 흡입되어 먼저 天氣를 상하게 하고 이어 地氣에 미치는 것으로서, 濕熱, 濕病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濕의 本氣는 대부분 脾胃의 陽虛로 인한 것으로서 먼저 地氣가 상한 후 이어 天氣에 미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外感에 의한 경우도 적지 않다.⁴⁵⁾ 이를 바탕으로 濕으로 인한 병을 다스림은 곧 本氣와 化氣를 구별하고 外感和 內傷을 구별하는 한편 濕多, 熱多, 化燥, 化火 등의 변화를 구별하는 것이 근본이 되는 것이다.⁴⁶⁾

濕으로 인한 병을 다스림에 있어 먼저 석수당의 관점이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은 濕熱을 다스림에 있어 肺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점이다. 즉 肺는 인체에서 天氣에 속하는 것으로서, 天氣가 하강하면 濁邪에 속하는 濕은 하행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⁴⁷⁾ 이 점과 관련하여 그는 여국패의 논리를 인용하면서⁴⁸⁾, 惡寒, 足冷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 이를 傷寒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溫散의 처방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실 濕으로 인해 陽氣가 울결된 것이며, 이와 같은 濕熱의 증상에는 단지 蘆根, 燈心草와 같은 甘淡의 성미를 지닌 것들로서 通陽利竅하기만 해도 땀이 나면서 나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부류의 증에 있어 석수당은 辛燥한 성미로써 升散하는 효능을 지닌 약제들을 금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따라 生薑 같은 것마저 약성이 升하는 성질을 지닌 탓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렇지 않고 이런 약들을 사용한다면 濕病에는 發汗이나 升散의 처방을 삼간다는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發汗의 경우에는 亡陽이 되고 升散의 경우에는 상부의 蒙蔽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濕을 다스림에 있어서는 體가 가볍고 辛淡의 味를 지닌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고 본 것으로서, 辛味를 지닌 것들로는 杏仁, 蔻仁, 半夏, 厚朴 등이 있고, 淡味를 지닌 것으로는 薏苡仁, 通草, 茯苓, 豬苓, 澤瀉 등이 있다.

또한 寒濕이나 風濕의 증에 있어서도 석수당은 역대 의가들의 처방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는데, 즉 薄荷, 蘇葉, 荊芥, 防風, 羌活, 獨活 같은 升散의 효능을 지닌 약들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가 생각하기에 이런 약들은 燥한 성미와 함께 升散의 효능을 지닌 것이며, 이런 약들을 濕邪에 사용할 경우 濕邪가 안으로 包絡을 막아 神昏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한 아래로 肝膽을 상하여 驚厥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석수당은 麻黃을 적은 양으로 사용하는 것을 위주로 하거나 麻黃을 대신해 杏仁, 蘇梗 등을 쓰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⁴⁹⁾

44) 石壽棠. 醫原. 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91. “濕生于土, 本氣屬陰, 陰爲寒濕, 後乃漸化爲濕熱, 然陰氣必得陽氣而後升, 所以盛夏熱甚濕生, 萬物皆潤, 溽暑蒸淫, 自下而上, 升于太虛, 爲雲霧雨露, 則濕之化氣, 又爲陰中之陽.”

45) 石壽棠. 醫原. 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91. “大抵濕之化氣, 多從上受, 邪自口鼻吸入, 故先傷天氣, 次及地氣. …… 濕之本氣多從內受, 總由脾胃陽虛, 不能化水所致, 故先傷地氣, 後及天氣. …… 濕之本氣, 又或從外受, 下受, 傷天氣, 并及地氣.”

46) 石壽棠. 醫原. 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91. “治之者, 須要分別爲本氣, 爲化氣, 爲分邪爲合邪, 爲外感爲內傷, 于外感中又須分別兼風兼寒兼暑之因, 于外感內傷中又須分別濕多熱多化燥化火之變.”

47) 石壽棠. 醫原. 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94. “肺是人身天氣, 天氣下降, 濁邪焉有不降之理? 或從汗解, 或從小便解. …… 濕熱治肺, 千古定論也.”

48) 石壽棠. 醫原. 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p.94-95. “余氏春山曰, 陽爲濕鬱, 不能外達下行, 每見惡

寒足冷, 若拘傷寒惡寒之說, 投以溫散, 其寒反甚, 但用蘆根燈草甘淡通陽利竅, 滾煎熱服, 下咽即覺熱從外達, 津津汗出而解. 屢驗不爽, 此其證也.”

49) 石壽棠. 醫原. 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108. “又曰, 病者一身盡痛, 發熱, 日晡益劇, 名風濕. …… 可與麻杏苡甘湯. 又曰, 濕身身煩疼, 可與麻黃加術湯. …… 唐宋以後諸方, 或不用麻黃, 或用麻黃, 并雜用薄荷, 蘇葉, 荊防, 羌, 獨升燥走竅之甚于麻黃者, 皆由于未嘗藥辨性之故. 夫麻黃誠不可多用, 若當用而用, 止三四分, 則較勝于雜用他藥者多矣. 即或不用而以杏仁蘇梗代之, 原無不可, 但勿雜用升燥走竅藥, 致濕邪內蒙包絡, 變爲神昏, 下傷肝膽, 變爲痲厥, 則善矣.”

溫病에 있어서도 석수당이 제기한 문제점을 찾아 볼 수 있는데, 그 한 예로 邪氣가 心包에 전해진 경우를 들 수 있다. 석수당은 心包와 관련하여 당시 많이 사용되었던 처방들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지녔는데, 이런 처방들은 苦寒하거나 陰柔한 성미를 지닌 것들이었다⁵⁰⁾. 특히 邪氣가 心包에 전해져 神昏, 譫煩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와 관련하여 석수당은 강조하기를, 舌苔가 黃膩하면 氣分의 濕熱이 안으로 心包를 감싸고 있는 것이지만 혀가 붉으면서 舌苔가 없다면 이는 濕이 燥로 化하여 陰을 상한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석수당이 보기에 당시의 많은 의가들은 이렇게 혀가 붉으면서 舌苔가 없는 것에 대해 이를 溫病으로 인해 陰分이 상한 것이라는 관념에만 얽매인 채 대체의 陰柔한 성미의 약들을 쓰곤 했던 것이다. 석수당의 관점에서 이런 처방은 濁熱이 上焦의 氣分을 막고 있는 상태에서 또 濁한 성질의 약을 사용함으로써 邪氣가 더욱 안으로 과고들게 만들 뿐인 것이었다. 이에 대한 석수당의 처방은 苦辛한 성미의 약으로 開化하는 처방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犀角, 鮮地黃, 連翹, 金銀花, 鬱金, 鮮石菖蒲, 蘆根, 梨汁, 竹瀝, 薑汁 등과 함께 寧上丸, 普濟丹 등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⁵¹⁾

이상의 몇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석수당이 濕의 병증과 관련하여 기존의 의가들의 처방을 비판한 것은 매우 다양한 병증을 포괄하는 것이었다. 석수당의 관점에서는 여러 다양한 병증들에서 濕이 병기의 중심이 되는 것인데, 기존에 사용되던 여러 처방들

은 기본적으로 濕의 문제임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濕을 적절하게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濕의 개념과 濕으로 인한 다양한 병증들의 예를 논하면서 그가 생각하는 당시의 문제들을 바로잡고자 했던 것이다.

(2) 燥의 증에 대한 논의

『醫原』에서 「燥氣論」의 내용은 「濕氣論」에 비해 다소 그 양이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燥의 병기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 그리 길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 있으며, 「燥氣論」에서는 「濕氣論」에서 여러 다양한 유형의 濕病을 논한 것과는 달리 燥의 개념 그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석수당은 燥에 대한 이전의 의가들의 논의들을 다수 언급함으로써 燥의 개념에 대한 논의들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이는 여국패가 燥에 대해 말하면서 그가 참고한 기존 의가들의 이름만을 나열하는 데 그쳤던 것과는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劉河間은 燥가 秋陰에 속한다고 하면서 風熱과 같은 속성을 지닌 것으로 여겼고⁵²⁾, 孫一奎도 秋分 이후로 清氣가 행하는 것이 곧 燥가 발현하는 것이라 하였다⁵³⁾. 이후 喻嘉言은 燥의 문제에 대해 『素問 至真要大論』의 病機十九條에서 燥의 문제가 빠져 있음을 말하면서, 『內經』에서 볼 수 있는 “秋傷于濕”은 사실 “長夏傷于濕, 秋傷于燥”로 해야 옳은 것이라 한 바 있다⁵⁴⁾. 또한 柯琴은 病機十九條에서 “諸類項強, 皆屬於濕”이라 한 것에 대해 瘵의 원인을 燥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을 밝히면서 燥에 대한 관점을 환기시켰다⁵⁵⁾.

50) 石壽棠. 醫原. 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98. “心宮之邪, 本屬鬱蒸之氣, 無質無形, 最忌一派苦寒冰伏, 陰柔濁膩, 如三黃解毒, 三黃地冬, 犀角地黃, 清營, 清宮等湯, 集而用之, 有闔無開, 毫無方義”/ p.102. “邪閉心宮, 亦當輕虛開泄, 若用陰柔, 則心氣愈遏, 邪無出路, 閉必益甚.”

51) 石壽棠. 醫原. 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p.97-98. “更有邪傳包絡, 化燥傷陰, 神昏譫妄, 舌赤無苔, 此證與前證同一神昏, 而虛實相反. 前系舌苔黃膩, 濕熱明征, 此系舌赤無苔, 傷陰確據. 斯時用藥, 最要空靈, 神昏爲內閉之象, 閉則宜開, 心宮乃虛靈之所, 虛則忌實, 宜犀角, 鮮地黃, 連翹, 銀花, 鬱金, 鮮石菖蒲, 蘆根, 梨汁, 竹瀝, 和姜汁少許, 滾煎熱服, 再用寧上丸或普濟丹, 開閉養陰, 較牛黃至寶尤勝. …… 今時習俗, 尤誤于溫病傷陰之說, 不知氣分熱鬱灼津之理, 每見舌絳, 便用大劑陰柔, 是濁熱已遏上焦氣分, 又用濁藥, 兩濁相合, 逼令邪氣深入膏肓, 深入骨髓, 遂成纏結不解之勢.”

52) 石壽棠. 醫原. 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121. “劉河間曰, 燥本屬秋陰, 里于寒濕, 而同于風熱, 熱甚則液耗風生, ……”

53) 石壽棠. 醫原. 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121. “孫一奎曰, 燥旺于秋, 然必秋分以後, 清氣行而萬物乃燥, ……”

54) 石壽棠. 醫原. 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123. “喻嘉言曰, 病機十九條, 獨遺燥氣. ……”

55) 石壽棠. 醫原. 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124. “柯韻伯論瘵濕異同曰, 病機十九條, 獨缺燥病, 若諸瘵項強, 皆屬於濕, 愚竊疑之, 即本論亦有瘵濕之分, 且曰太陽病(寒傷太陽經), 發汗太過, 因致瘵, 則瘵之屬燥無疑矣.”

이와 같은 의가들의 논의는 燥의 병기에 대해 기존에 논의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밝히고자 한 것들로서, 燥에 대한 논의들이 축적되어 온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석수당은 이상과 같은 기존 의가들의 논의를 언급하는 한편, 秋分 이후에 燥氣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면서 먼저 肺를 상하게 한다는 일반적인 관점을 제시하였다.⁵⁶⁾ 또한 그는 燥도 濕과 마찬가지로 本氣와 化氣로 구분하였는데, 燥熱이 燥의 本氣가 되고 寒燥가 化氣가 되는 것이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특히 강조하기를 당시의 의가들은 燥熱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寒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며, 이에 따라 燥의 병증에 辛燥升散의 효능을 지닌 처방들을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⁵⁷⁾ 즉 그의 관점에서는 당시의 많은 의가들이 燥로 인한 병증을 陰寒의 象으로 보고 辛燥升散한 성격의 처방을 쓰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며⁵⁸⁾, 이는 지속적인 誤治로 이어지는 원인이기도 하였다.⁵⁹⁾

이와 같은 관점은 석수당으로 하여금 「燥氣論」에서 燥熱보다는 寒燥에 대한 논의에 상대적으로 더 비중을 두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는 寒燥에 대한 처방이 이미 『內經』에서부터 제시되어 있는 것이라 하였다. 그는 “陽明司天, 燥淫所勝, 民病善嘔, 心脅痛不能轉側, 治以苦溫(苦當是微苦, 如杏仁之類, 取其通降. 溫當是溫潤, 非溫燥升散之類). 此『內經』治寒燥之正法也.”⁶⁰⁾라고 한 것에 이어 또한 “又曰, 陽明之

勝, 清發于中, 左脅痛, 溇泄, 內爲噎塞, 外發疔, 大涼肅殺, 華英改容, 毛蟲乃殃, 胸中不便, 噎塞而咳. 據此經文, 亦指涼燥搏束而言.”⁶¹⁾이라 했는데, 이는 모두 『素問 至真要大論』에서 볼 수 있는 陽明司天和 陽明之勝의 내용을 寒燥의 개념으로 이해한 것이다.⁶²⁾ 그 내용 가운데 陽明司天의 내용으로 말한 것은 사실 陽明在泉의 경우에 가깝다는 점에서 다소 모호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⁶³⁾, 그 처방으로 苦溫을 말한 것에 대해 苦는 微苦가 되어야 하고 溫은 溫潤이 되어야 한 것은 석수당이 생각하는 燥의 처방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燥의 처방에 대해 그는 苦澁한 성미가 가장 급해야 하는 것이고 甘柔한 성미가 가장 적합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⁶⁴⁾ 그리고 六氣의 상승과 관련하여 陽明의 勝함을 언급한 부분에 있어서는 끝부분에서 “據此經文,

61) 石壽棠. 醫原. 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115.

62) 『素問 六元正紀大論』에서도 “陽明所至, 爲燥生, 終爲涼”(黃帝內經素問.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7. p.140.)이라 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역시 陽明에 의한 燥를 寒燥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63) 『素問 至真要大論』에는 본래 “陽明司天, 燥淫所勝, 則木乃晚榮, 草乃晚生, 筋骨內變. 民病左肢脅痛, 寒清于中, 感而癢, 大涼革候, 咳, 腹中鳴, 注泄鶩瀉, 名木斂, 生苑于下, 草焦上首, 心脅暴痛, 不可反側, 噎乾面塵, 腰痛, 丈夫癱疝, 婦人少腹痛, 目昧眦. 瘍瘡痲癩, 蟄蟲來見, 病本于肝. 太沖絕, 死不治.”(黃帝內經素問.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7. p.146)라고 되어 있어 석수당이 말한 것과는 많이 다르게 되어 있다. 석수당이 말한 내용은 오히려 陽明在泉의 경우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즉 陽明在泉에 대해서는 “歲陽明在泉, 燥淫所勝, 則霧霧清冥. 民病喜嘔, 嘔有苦, 善太息, 心脅痛不能反側, 甚則噎乾面塵, 身無膏澤, 足外反熱.”(黃帝內經素問.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7. p.145.)이라 되어 있다.

64) 石壽棠. 醫原. 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114. “大抵是病用藥, 最忌者苦澁, 最喜者甘柔.” 이 내용은 『醫原』의 「燥氣論」에서 邵新甫의 말을 인용한 부분에 속해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은 『臨證指南醫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臨證指南醫案』에는 邵新甫의 말이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燥爲乾澀不通之疾, 內傷外感宜分, 外感者由于天時風熱過勝, 或因深秋偏亢之邪, 始必傷人上焦氣分, 其法以辛涼甘潤脾胃爲先, 喻氏清燥救肺湯, 及先生用玉竹門冬桑葉薄荷梨皮甘草之類是也. 內傷者, 乃人之本病, 精血下奪而成, 或因偏餌燥劑所致, 病從下焦陰分先起, 其法以純陰靜藥, 柔養肝腎爲宜, 大補地黃丸, 六味丸之類是也. 要知是症大忌者苦澀, 最喜者甘柔, ……”(葉天士. 臨證指南醫案. 醫案醫話醫論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168)

56) 石壽棠. 醫原. 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115. “夫乾金主燥, 于時爲秋, 然秋不遽燥也, 秋分以後, 漸至大涼, 露寒霜肅, 清氣搏激, 燥乃行令. 燥從天降, 首傷肺金, 肺主一身氣化, 氣爲燥鬱, 清肅不行, 機關不利.”

57) 石壽棠. 醫原. 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114. “夫因寒而燥, 爲燥之化氣, 由燥而熱, 乃燥之本氣. 人但知燥熱爲燥之常, 而不知寒燥爲燥之變, 無怪乎其辛燥升散, 動輒得咎也.”

58) 石壽棠. 醫原. 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117. “所以每遇外感, 渾曰風寒, 不辨其爲風燥, 爲風濕, 爲寒燥, 爲寒濕, 至暑燥初起, 與寒燥相似, 更不之辨. 但見寒熱, 無汗, 頭身疼痛, 咳嗽, 嘔吐, 胸膈氣逆等證, 輒用辛燥升散.”

59) 石壽棠. 醫原. 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117. “若是者, 始而以燥治燥, 致邪走竄, 繼而苦寒冰伏, 陰柔滋膩, 致邪閉結, 終而誤下失下, 致邪實正虛, 輕者重, 重者死. 蓋不知凡幾, 其爲可慨, 不亦甚乎!”

60) 石壽棠. 醫原. 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115.

亦指涼燥搏束而言。”이라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부분은 吳鞠通的 『溫病條辨』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오국통은 『溫病條辨』의 「秋燥勝氣論」에서 沈目南의 『燥病論』의 내용을 인용하였으며,⁶⁵⁾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석수당이 말한 부분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석수당은 이전의 의가들의 논의를 빌어 『素問 至真要大論』에서의 ‘燥淫所勝’에 대한 내용을 寒燥에 의한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석수당은 『內經』에서 말하는 燥邪의 개념을 寒燥로 이해하였고, 그에 이어 “寒燥如此, 溫燥可知”라 했을 뿐 燥熱 내지 溫燥의 문제는 사실상 상세히 논하지 않았다. 이는 濕을 논한 부분에서 寒濕이 점차 濕熱로 化한다고 한 것과도 같이 寒燥가 점차 燥熱로 化함을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⁶⁶⁾, 劉河間이 燥를 風熱의 범주에서 논한 것과 같은 예도 있듯이 燥熱과 寒燥의 차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했었다고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석수당이 말한 燥의 치법도 寒燥를 중심으로 논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가 말하는 치법은 초기에 아직 熱化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杏仁, 牛蒡子, 桔梗과 같은 辛潤한 성미의 약으로 氣機를 開達시키는 것이고, 熱化한 경우에는 辛潤한 약들에 清潤輕虛의 성미를 지닌 약들을 두세 종류 가미하는 것이다.⁶⁷⁾

65) 『溫病條辨』의 「秋燥勝氣論」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陽明燥金涼氣司令, 經云, 陽明之勝, 清發于中, 左肢脅痛, 漉泄, 內爲噎塞, 外發癰疽, 大涼肅殺, 華英改容, 毛蟲乃殃, 胸中不便, 噎塞而咳. 據此經文, 燥令必有涼氣感人, 肝木受邪而爲燥也.”(吳鞠通. 溫病條辨.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4. p.67.)

66) 「百病提綱論」에 따르면 “寒燥化爲燥熱, 返其本也, 寒濕化爲濕熱, 因乎變也.”(石壽棠. 醫原. 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p.33-34.)라 하였다. 즉 燥의 경우는 化氣에서 本氣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濕의 경우는 本氣에서 化氣의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67) 石壽棠. 醫原. 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119. “以燥氣論, 燥邪初起, 在未化熱時, 宜用辛潤開達氣機, 如杏仁, 牛蒡, 桔梗之屬. …… 其化熱者, 于辛潤劑中, 酌加清潤輕虛之品二三味, 如梨皮, 蔗皮, 梨汁, 蔗汁, 茅苳, 蘆根, 石膏, 知母, 川貝母, 南沙參, 桑葉, 菊花, 銀花, 花粉之類, 以泄其熱, 熱泄則清肅令行, 氣機流利, 亦必化汗而解.”

4. 고찰

이상의 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燥와 濕의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석수당의 의학이론은 여국패의 본래의 논의를 확장시키는 한편으로 그 자신이 임상에서 가졌던 다양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었다. 여국패와 석수당이 임상에서 지녔던 문제의식이란 결국 寒熱의 변화가 기본적으로 燥濕의 기운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燥濕이야말로 진정으로 陰陽을 대표한다는 것이었다. 이들이 보기에 기존의 많은 의가들은 이 같은 燥와 濕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한 많은 병증들을 단순히 風寒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溫燥, 升散한 성격의 風藥이 들어가는 처방을 남용하고 있었다. 이는 濕의 증의 경우 發汗의 과도로 인해 亡陽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었고 燥의 증의 경우에도 이를 더 심화시키면서 陰血의 심한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었다. 이에 여국패와 석수당은 다양한 병증들에 대한 검토와 이론적 논의를 통해 六氣에서 결국 燥와 濕이야말로 陰陽을 대표하는 것임을 논하고자 했던 것이며, 이는 기존의 의학이론들과는 다른 면모를 보이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물론 이들 이전에도 六氣 중의 燥와 濕의 문제에 대한 연구는 선후의 차이나 양적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역대 의가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왔던 것이지만,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燥와 濕을 陰陽의 두 축이 되는 것으로 여기면서 이를 중심으로 의학이론을 구축하고자 했다는 것이 기존의 의가들과 이들을 구별 짓는 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국패와 석수당의 이 같은 논의가 새로운 것으로 인식되는 만큼 이들 이전에 어떤 논의들의 축적이 있었기에 그들의 새로운 주장이 가능했던가에 대한 의문 역시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고찰은 그 논의 자체가 단순하지 않은 만큼 여러 각도에서 진행될 수 있는 것이겠지만, 본 고찰에서는 여국패와 석수당의 주장과 연결될 수 있는 기존 의가들의 논의들을 살펴봄으로써 燥, 濕 중심의 의학이론이 형성될 수 있었던 이론적 축적 과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여국패로부터 석수당에 이르기까지 燥, 濕

을 陰陽의 중심으로 하는 관점은 기본적으로 喻嘉言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가언은 『醫門法律』의 「秋燥論」에서 燥를 하늘의 기라 하고 濕을 땅의 기라 하면서 하늘과 땅 사이의 기의 승강을 燥, 濕을 중심으로 논하였으며, 또한 寒熱과 燥濕의 상관성을 ‘火就燥’와 ‘水流濕’의 관계로 설명하였다⁶⁸⁾. 이 내용이 곧 여국파와 석수당에 의해 인용되면서 이들의 燥濕論治의 기본적인 골격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유가언의 논의가 곧 燥와 濕을 六氣 중의 핵심적인 두 기운으로 끌어올린 것은 아니며 또한 燥와 濕을 중심으로 寒濕, 濕熱, 燥熱, 寒燥의 내용이 구성되는 것은 기존의 더 많은 논의들이 축적된 결과이므로, 이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먼저 주목할 만한 것은 明代 의가 龔信的 『古今醫鑑』에 나타난 예이다. 龔信은 『古今醫鑑』에서 寒濕과 燥熱을 인체의 질병을 구분하는 두 종류의 큰 틀로 말한 바 있다⁶⁹⁾. 이 내용은 龔信이 『古今醫鑑』의 「中寒」에서 五積散에 대해 설명하면서 부가하여 놓은 것으로서, 寒濕과 燥熱을 각각 陰과 陽의 증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면서 防風通聖散과 五積散을 언급한 것이다. 비록 이 내용이 「中寒」에 나오는 것이고 寒濕과 燥熱을 말한 것이 곧 濕과 燥의 개념을 강조한 것은 아니지만, 陰과 陽의 증 각각을 크게 寒濕과 燥熱의 틀 내에서 본다는 점은 六氣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⁷⁰⁾

그렇다면 어떻게 龔信과 같이 사람의 병을 寒濕과 燥熱이라는 큰 틀로 요약하는 개념이 생겨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金元代 의가들의 논의에 대한 검토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燥에 대한 劉河間의 논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석수당도 언급한 바 있듯이 유하간은 燥가 본래 陰에 속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風熱과 같은 부류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하였다.⁷¹⁾ 즉 六氣에서 風, 熱, 火는 陽에 속하고 寒, 濕, 燥는 陰에 속한다고 하지만, 유하간은 燥의 경우 寒, 濕과는 달리 陽에 속하는 風, 熱, 火에 가깝다고 본 것이다⁷²⁾. 이와 같은 유하간의 주장은 燥의 속성을 陽에 속하는 것으로 본 대표적인 예로서, 이후 유가언과 섭천사 등에게 많은 영향을 준 것이다⁷³⁾. 燥에 대한 이 같은 유하간의 주장은 燥의 병기적 특성을 말하고자 한 것일 뿐이지만, 燥에 陽적인 속성을 부여하면서 寒濕과 燥熱의 틀이 나뉘게 되는 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寒과 濕과 같은 陰邪의 경우에 있어서는 張子和가 寒을 다스림에 있어 濕을 내모는 것을 위주로 하는 처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⁷⁴⁾, 이는 寒과 濕이 같은 성질을 공유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유하간과 장자화의 예는 六氣의 개

龔信의 말이 인용되어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 68) 喻嘉言, 醫門法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2, p.204. “喻昌曰, 燥之與濕, 有霄壤之殊. 燥者, 天之氣也. 濕者, 地之氣也. 水流濕, 火就燥, 各從其類, 此勝彼負, 兩不相謀. 春月地氣動而濕勝, 斯草木暢茂, 秋月天氣肅而燥勝, 斯草木黃落. 故春分以後之濕, 秋分以後之燥, 各司其政.”
- 69) 龔信, 古今醫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81. “夫寒濕屬陰, 燥熱屬陽, 人之有病, 不過二者而已. 善用藥者, 以苦寒而泄其陽, 以辛溫而散其陰, 病之不愈者, 未之有也. 余常用防風通聖散治熱燥之藥, 生料五積散治寒濕之藥.”
- 70) 龔信의 이 말은 『東醫寶鑑』에도 인용되어 있는데, 『東醫寶鑑』에서는 雜病篇의 「用藥」 부분에 ‘人病不過寒濕燥熱’이라는 소제목 하에 실려 있다. 그리고 이는 여국파가 『醫理』에서 『東醫寶鑑』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여지가 없지 않다. 앞에서 보았듯이 여국파가 『東醫寶鑑』을 언급한 것은 『東醫寶鑑』에 燥症이 산재해 있다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가 『東醫寶鑑』을 보는 과정에서

- 71) 劉河間, 黃帝素問宣明論方,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85. “燥乾者, 今肺之本, 燥金受熱化, 以成燥證也. 兼火熱, 致金衰耗液而損血. 鬱而成燥者, 由風能勝濕, 熱能耗液, 故經云風熱火同, 陽也, 寒濕燥同, 陰也. 又燥濕, 小異也. 金燥雖屬秋陰而其性異于寒濕, 而反同于風熱火也.”
- 72) 劉河間은 또한 『素問玄機原病式』에서 말하기를 風, 熱, 燥는 兼化하는 경우가 많고 寒과 濕은 성질이 같아 兼化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劉河間, 素問玄機原病式,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35. “風熱燥同, 多兼化也. 寒濕性同, 多兼化也.”
- 73) 趙珊珊, 淺論中醫學關於‘燥’之陰陽屬性及其臨床啓迪, 江西中醫學院學報, 2013, 25(5), p.4.
- 74) 예를 들어 『儒門事親』의 「濕形」에 따르면 “水濕得寒, 而浮蓄于皮膚之間, 久而不去, 內舍六腑. 曰, 用去水之藥可也. 水濕者, 人身中之寒物也. 寒去則血行, 血行則氣和, 氣和則愈矣.”(張子和, 儒門事親,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p.164.)라고 하여, 寒을 다스림에 있어 水濕을 몰아내는 것을 위주로 하였다.

념에 있어 燥를 風熱과 함께 陽의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새롭게 인식하는 한편, 陰寒의 증상을 다스림에 水濕을 몰아내는 치법을 쓰는 것과 같이 寒과 濕간의 상관성을 새롭게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에 사람의 체질적 특성을 寒濕, 燥熱과 관련지은 내용도 찾아볼 수 있는데, 유가언의 『醫門法律』에 따르면 肥人은 氣가 虛하여 寒濕으로 인한 증이 많고 瘦人은 血이 虛하여 熱燥로 인한 증이 많다고 한 것이다.⁷⁵⁾ 이 내용은 일찍이 宋代의 의가인 楊士瀛의 『仁齋直指方』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⁷⁶⁾, 氣虛인지 血虛인지와 같은 내적인 조건에 따라 寒濕과 燥熱의 증이 나눌 수 있음을 말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寒濕과 燥熱로 陰陽의 큰 틀을 나눈다고 할 때, 이는 寒, 濕과 燥, 熱이 陰陽의 속성에 따라 묶인 것일 뿐 아직 寒熱보다 燥濕에 더 중심을 둔 것은 아니다. 그리고 寒濕, 燥熱 외에도 濕熱, 寒燥의 틀이 더 있을 수 있는데, 이 가운데 寒燥의 개념이 정립된 것은 寒濕, 濕熱, 燥熱에 비해 뒤늦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⁷⁷⁾, 석수당도 寒燥의 개념이 의가들에게 잘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던 만큼 이에 대한 개념의 정립은 燥濕論治 체계의 정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寒과 燥가 합해진 寒燥의 개념은 본래 李東垣에 의해 제기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⁷⁸⁾, 이동원은 腎의 병을 설명함에 있어 虛邪에 해당하는 증을 寒邪과 燥邪의 조합을 통해 설명한 바 있다⁷⁹⁾⁸⁰⁾. 이후 明代의 孫一奎는 『素問』에서 말하는

燥를 令氣라 하고 여러 의가들의 저작에서 논한 燥에 대해서는 病機를 말한 것이라 하였으며⁸¹⁾, 여기에서 燥를 令氣라 한 것은 秋分 이후에 清氣가 행하면서 燥가 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⁸²⁾, 病機로서의 燥는 유하간이 말한 것과 같이 風熱과 함께 발현되는 것으로서의 燥를 말한 것이다⁸³⁾. 즉 孫一奎는 燥에 대해 그 기본적인 속성과 병기로서 발현되는 면을 구분해야 한다는 관점을 내세우면서 유하간 이래로 燥가 風熱과 함께 陽의 속성 위주로만 이해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적 관점의 견해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張景岳은 『景岳全書』에서 燥에 陰, 陽의 속성이 모두 있음을 말하였는데, 즉 濕에 陰陽이 있듯이 燥에도 陰陽이 있음을 말한 것으로서 燥를 火로 인한 것과 寒으로 인한 것으로 구분하였다⁸⁴⁾. 이후 秋燥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정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清代의 유가언은 『醫門法律』의 「秋燥論」에서 燥의 속성을 그 발현하는 시간적 선후에 따라 설명하였고, 이는 후대에 이른바 ‘溫燥’와 ‘涼燥’의 개념이 유행하는 계기가 되었다⁸⁵⁾. 여기에

75) 喻嘉言. 醫門法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2. p.68. “『小學』有火濕分治之法, 謂肥人氣虛生寒, 寒生濕, 濕生痰, 瘦人血虛生熱, 熱生火, 火生燥. 故肥人多寒濕, 瘦人多熱燥也.”

76) 楊士瀛. 仁齋直指方. 上海. 第二軍醫大學出版社. 2006. p.27. “肥人氣虛生寒, 寒生濕, 濕生痰, 瘦人血虛生熱, 熱生火, 火生燥. 故肥人多寒濕, 瘦人多熱燥也. 夫以人形分寒濕熱燥, 此得之于外, 然其中臟腑爲病, 亦有寒濕熱燥之殊, 不可不知.”

77) 濕熱의 경우에는 朱丹溪가 『格致餘論』의 서문에서 “因見河間, 戴人, 東垣, 海藏諸書, 始悟濕熱相火爲病甚多”(朱丹溪. 格致餘論.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p.916.)라고 하였듯이 金元代에 들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78) 孟繁潔. 金元四大家論燥. 四川中醫. 2003. 21(11). p.7.

79) 李東垣. 醫學發明.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759. “假令腎病, …… 虛邪, 寒清相合, 腎唾多唾, 酒漸寒清, 無寐. 『經』言, 燥化清. 其脈沈實而澁, 酸棗仁湯主之.”

80) 여기에서 볼 수 있는 ‘寒’과 ‘清’의 결합은 李東垣 이전에 宋代의 陳無擇의 『三因極一病證方論』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동원은 ‘清’을 燥가 化한 것으로 본 것이다. 陳無擇은 『三因極一病證方論』에서 “諸疫證治, 凡春分以前秋分以後, 天氣合清寒, 忽有溫暖之氣折之, 則民病溫疫. 春分以後秋分以前, 天氣合濕熱, 忽有清寒之氣折之, 則民病寒疫.”(陳無擇. 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7. p.109.)이라 하여, 秋分 이후의 天氣를 ‘清’과 ‘寒’이 합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81) 孫一奎. 赤水玄珠. 孫一奎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60-61. “予故曰, 『素問』言燥者, 指令氣也. 諸書云燥者, 指病氣也.”

82) 孫一奎. 赤水玄珠. 孫一奎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0. “金之化清與燥, 主于秋, 爲五之氣, …… 天度至此, 清氣乃行, 萬物皆燥也.”

83) 孫一奎는 이에 대해 『赤水玄珠』의 「燥門」에 「燥本風熱論」이라는 제목으로 유하간의 논의를 인용하고 있다.

84) 張景岳. 景岳全書.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78. “濕燥二氣, 雖亦外邪之類, 但濕有陰陽, 燥亦有陰陽. 濕從陰者, 爲寒濕, 濕從陽者, 爲濕熱, 燥從陽者, 因于火, 燥從陰者, 發于寒.”

85) 連博, 孫瑩, 楊梅. 淺釋喻嘉言『醫門法律』燥證辨治之貢獻. 雲南中醫學院學報. 2009. 32(2). p.58.

서 溫燥는 초가을의 燥氣에 여름의 남은 暑邪을 품고 있는 것이며, 涼燥는 깊은 가을로 들어가면서 燥金의 기가 본격적으로 발현되는 것이다⁸⁶⁾. 그럼에도 유가언이 창방한 것으로 이름이 있는 清燥救肺湯이 溫燥에 대한 것이고 그가 말한 涼燥도 “燥勝則乾”이라 하여 건조함의 개념을 위주로 했다는 점에서 유가언이 涼燥와 관련된 뚜렷한 인식을 남긴 것으로 간주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涼燥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제시한 의가는 오국통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그는 『溫病條辨』에서 “秋燥之氣, 輕則爲燥, 重則爲寒, 化氣爲濕, 復氣爲火”⁸⁷⁾라 하면서 燥의 병기를 寒의 속성을 지닌 것으로 설명하였다. 비록 涼燥에 대한 오국통의 논의가 “燥勝則乾”⁸⁸⁾이라 했음에도 燥로 인해 寒飲이 나타난다고 하는 점을 이해할 수 없고 또 여기에 杏蘇散, 小青龍湯 등을 쓴다고 했다는 점 등으로 인해 그가 風寒의 증을 涼燥로 잘못 이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⁸⁹⁾, 오국통은 燥의 증을 다스림에 있어 그 안에 寒의 속성이 있음을 강조한 바 있으며⁹⁰⁾, 석수당은 이와 같은 오국통의 涼燥의 설을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에서와 같이, 燥에 대해서는 일찍이 유하간 이후로 그것이 陽적인 속성을

위주로 인식되었으나 이후 寒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 대한 주장들도 제기되면서 점차 燥熱과 寒燥 내지는 溫燥, 涼燥 등의 틀로 구분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燥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燥熱과 寒燥 내지 溫燥, 涼燥의 개념은 燥의 陰陽적 속성에 따른 구분일 수도 있고 燥와 六氣 중의 다른 기와의 겸화에 따른 것일 수도 있으며, 손일규가 언급했듯이 절기에 따른 六氣의 발현이나 병기 상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寒濕, 濕熱, 燥熱, 寒燥 등의 개념이 있다 할 때 여기에서 곧 燥, 濕이 중심이 되는 것이라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국패와 석수당은 임상에서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寒熱과 燥濕의 복합적인 변화를 燥濕을 중심으로 두고 이해하고자 했으며, 이에 따라 寒熱은 燥濕의 변화를 유도하는 부수적인 성격의 것이 되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유가언이 하늘과 땅 사이의 기의 승강을 燥와 濕을 중심으로 설명한 점은 여국패와 석수당의 논의에 가장 기본적인 골격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면은 이후 清代의 何夢瑤가 『醫編』의 「六氣說」에서 말한 것보다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하몽요는 四季의 溫熱涼寒의 변화에 따라 土의 기로서의 燥濕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熱濕, 寒燥, 熱燥, 寒濕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四季의 변화에 따라 발현하는 六氣의 개념을 溫熱涼寒과 燥濕을 중심으로 보고 風은 특정한 시간적 배속을 두지 않는 개념으로 변화시켰다⁹¹⁾. 그리고 이는 『內經』에서 말하는 대로의 六氣의 개념을 벗어나고자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국패와 석수당은 결국 이와 같은 燥濕 중심의

86) 喻嘉言. 醫門法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2. p.205. “然新秋之涼, 方以卻暑也, 而夏月所受暑邪, 即從涼發. 『經』云, 當暑汗不出者, 秋成風癘. 舉一癘而凡當風取涼, 以水灌汗, 乃至不復汗而傷其內者, 病發皆當如癘之例治之矣. ……以其原來皆暑濕之邪, 外內所主雖不同, 同從秋風發之耳. 若夫深秋燥金主病, 則大異焉. 經曰, 燥勝則乾. ……至所傷則更厲, 燥金所傷, 本推肝木, 甚則自戕肺金.”

87) 吳鞠通. 溫病條辨.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4. p.69.

88) 이는 『素問』의 「陰陽應象大論」에서 찾아볼 수 있다. 黃帝內經素問.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7. p.8. “風勝則動, 熱勝則腫, 燥勝則乾, 寒勝則浮, 濕勝則濡瀉.”

89) 吳鞠通. 溫病條辨.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4. p.69. “肺爲燥氣所搏, 不能通調水道, 故寒飲停而咳也. 鼻塞者, 鼻爲肺竅. 嗆寒者, 嗆爲肺系也. 脈弦者, 寒兼飲也. 無汗者, 涼搏皮毛也. 按杏蘇散, 減小青龍一等.” 이에 대한 현대의 비판적 논의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참고할 수 있다. 何德昭. 評吳鞠通之涼燥學說. 中醫藥導報. 2006. 12(2). p.11/ 陳海生 外 3人. 涼燥者, 非燥也. 中醫雜誌. 2009. 50(2). p.186.

90) 吳鞠通. 溫病條辨.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4. p.67. “若治燥病, 則以涼投涼, 必反增病劇. 殊不知燥病屬涼, 謂之次寒, 病與感寒同類.”

91) 何夢瑤. 醫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p.14-15. “竊謂溫涼寒熱四氣, 分布四時, 鐵闢不易. 燥濕二氣, 皆屬之土, 有寒濕, 有熱濕, 有寒燥, 有熱燥, 分布四季, 月辰未爲濕土, 溫熱之所蒸也, 戌酉爲燥土, 寒涼之所肅也, 是爲熱濕寒燥. 又火在地中而土燥, 坤土次于離火之後是也, 水在地中而土濕, 艮土次于坎水之後是也, 是爲熱燥寒濕. 蓋土德兼該, 有如是也. 風則無時不有而秋冬更爲凜烈, 合之爲七氣, 夫何不可之有哉. 昔人謂『內經』非岐黃書, 乃後人之假托, 要未必出于一手, 故有醇有疵, 分別觀之可耳.”

의학이론을 새로운 이론적 틀을 통해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여국패는 먼저 『醫理』에서 이를 단순하게 易學의 이론을 보충시켜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석수당은 그 이론적 틀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寒熱과 燥濕의 발현을 天地의 구조와 운행에 대한 논의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그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하늘의 기에 燥의 속성을 부여하는 것을 宗動天의 개념을 통해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燥의 기를 剛, 健의 성질을 지닌 乾金의 기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석수당은 기본적으로 주희의 논의를 빌어 말했지만 天氣가 剛, 健의 성질을 지닌 乾金의 기에 속한다는 것은 일찍이 朱丹溪도 『格致餘論』에서 「天氣屬金說」이라는 내용을 통해 말한 바 있으며⁹²⁾, 여기에서 朱丹溪는 乾金의 기를 燥와 연결시키기까지 하지는 않았으나 석수당은 重天說적인 논의를 통해 최상층의 宗動天의 乾金의 기에 燥의 속성을 부여하고 그 아래의 해에 火의 속성을 부여한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하늘과 땅 사이의 기의 교류가 기본적으로 땅으로부터의 濕의 상승과 하늘로부터의 燥의 하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게 되었는데, 이 점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석수당이 燥와 관련하여 기존의 논의와는 다른 성격의 새로운 주장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여국패에게서도 볼 수 있는 면으로서, 즉 가을 이후로 하늘에서 燥氣가 하강하는데 특히 겨울에 이르러 陽氣가 潛藏하는 시기를 燥火가 가장 드세지는 시기라고 한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유가언의 논의를 참고해 볼 수 있는데, 그는 『素問 生氣通天論』에서 “秋傷于濕, 上逆而咳, 發爲痿厥”⁹³⁾이라 한 것에 대해 이를 “秋傷于燥”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과 함께 “上逆而咳, 發爲痿厥”의 병기를 가을 이후로 燥火가 하강하면서 제대로 潛藏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였다⁹⁴⁾. 즉 가을 이후의 收藏의 변화는 곧 燥火가 하강하는 것이며, 陽氣가 潛藏하는 겨울은 곧 내면적으로 燥火가 극점에 이르는 시기로 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석수당은 겨울철의 傷寒으로 인한 發熱을 燥熱의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기까지 하였으며⁹⁵⁾⁹⁶⁾, 이는 傷寒을 기본적으로 寒燥의 각도에서 보는 한편 그 안에 또 燥火가 깃들여 있어 쉽게 發熱이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傷寒으로 인한 發熱을 설명하는 새로운 개념이자 석수당 자신이 燥의 문제를 강조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면은 곧 여국패 이후로 석수당에 의해 이론적으로 더 체계화되는 과정을 거친 것이며, 하늘에서 燥와 火가 짝을 이루는 가운데 燥한 기가 하강할 때 陰氣를 품고 내려오면서 寒燥가 생겨나지만 陽氣가 潛藏하는 겨울이 되면 내면적으로 燥火가 가장 강해지게 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상의 내용과 같이 여국패와 석수당 이전의 많은 의가들은 寒熱과 燥濕을 중심으로 六氣의 개념에 변화를 가져올 만한 새로운 논의들을 축적해 왔던

92) 朱丹溪. 格致餘論.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937. “邵子曰, 天依地, 地依天, 天地自相依附. 『內經』曰, 大氣舉之也. 夫自清濁肇分, 天以氣運于外而攝水, 地以形居中而浮于水者也. 是氣也, 即天之謂也. 自其無極者觀之, 故曰大氣. 至清, 至剛, 至健, 屬乎金者也.”

93) 黃帝內經素問.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7. p.5.

94) 喻嘉言. 醫門法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2. p.22. “問秋傷于濕, 上逆而咳, 發爲痿厥, 與逆冬氣則傷腎, 春爲痿厥有別否? 曰, 此痿厥與春月之痿厥大異. 秋傷于濕, 吾已力辨其爲傷燥矣. 傷于燥則肺先病也. 咳者肺之本病, 其候不一, 上逆而咳, 燥之徵也. 至發而爲痿, 則肺金摧乎肝木, 發而爲厥, 則肺氣逆而不行, 燥之極矣. 此蓋燥火內燔, 金不寒, 水不冷, 秋冬不能收藏, 與春月不能發生之故, 相去不亦遠乎?”

95) 石壽棠. 醫原. 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35. “冬在卦爲坎, 一陽居二陰之中, 寒水外凝而燥火內濟, 故寒燥之病易化爲燥熱, 經謂傷寒爲熱病, 蓋寒則燥, 燥則熱, 理相因也.”

96) 傷寒의 병이 반드시 燥의 기를 겸한다고 하는 것은 오국통이 『溫病條辨』에서 말한 바 있다. (吳鞠通. 溫病條辨.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4. p.67. “傷寒必兼母氣之燥, 故初用辛溫甘熱, 繼用辛涼苦寒, 終用甘潤, 因其氣化之所至而然也.”) 따라서 傷寒을 寒燥의 개념을 통해 설명하는 석수당의 논의가 오국통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도 있지만, 傷寒의 발열을 燥火와의 관련 하에서 설명하는 것은 오국통의 논의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오국통은 “秋燥之氣, 輕則爲燥, 重則爲寒, 化氣爲濕, 復氣爲火”라 하여 燥의 復氣를 火라 하였는데, 즉 이는 燥가 극점에 이르렀을 때 火가 발현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이를 燥火의 개념과 연결시킬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것을 알 수 있으며, 여국패와 석수당은 상당 부분이 같은 논의들을 기초로 자신의 새로운 이론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석수당의 『醫原』에 나타난 燥濕論治는 六氣 중의 燥와 濕을 제반 병증의 병기의 핵심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일찍이 여국패가 『醫理』에서 전개한 논의들을 확충한 성격의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여국패는 당시의 의가들이 여러 병증들의 원인을 단순하게 風寒으로 보곤 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燥, 濕이야말로 여러 병증들의 주된 원인임을 강조하였으며, 이는 곧 제반 병증에서 燥, 濕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함에도 이를 단순하게 風寒의 문제로 여기고 溫燥, 升散의 효능의 약들을 남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녔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부터 여국패는 六氣에서 燥와 濕을 각각 陽과 陰을 대표하는 기운으로 보면서 하늘과 땅 사이의 기의 승강을 燥, 濕 중심으로 논하는 한편, 燥, 濕 이외의 다른 기운들은 모두 결국 燥, 濕의 변화로부터 化生하는 것이라는 이론체계를 구상하였다.

이후 석수당은 여국패의 논의를 계승하여 그 燥濕論治 체계의 이론적 기초를 강화하는 한편 임상과 관련된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였다. 석수당은 『醫原』의 첫머리에서 燥와 濕이 각각 하늘과 땅의 기가 되는 이치를 당시의 천문이론을 통해 새롭게 설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여국패가 논한 燥濕과 寒熱 간의 관계가 이론적으로 구체화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석수당이 원용한 천문이론은 하늘이 여러 개의 기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서, 宋代의 朱熹로부터 구체화된 이론이 서구 천문학의 영향을 받아 변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석수당은 이 같은 천문이론을 통해 하늘과 땅 사이의 기의 승강을 燥, 濕 중심으로 논하였으며, 그 안에서 寒燥, 燥熱, 寒濕, 濕熱 등으로 분화되는 기의 조합들을 本氣와 化氣로 나누어 명명한 것은 석수당에 이르러 燥濕論治의 이론적 기초가 더 체계화되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여국패로부터 석수당에 이르는 燥濕論治 체

계는 그 이전의 여러 의가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준 의가로는 喻嘉言이라 할 수 있다. 유가언은 『醫門法律』에서 하늘과 땅 사이의 기의 승강을 燥와 濕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으며, 이는 여국패로부터 석수당에 이르기까지 燥, 濕 중심의 이론체계에 기본적인 골격으로 작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유가언의 논의는 六氣에서 燥와 濕을 핵심적인 요소로 끌어올린 정도의 것까지는 아니며 또한 寒濕, 濕熱, 寒燥, 燥熱 등으로 분류되는 다양한 임상이론을 포괄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燥濕論治의 이론체계의 형성에 대해서는 그 밖에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된 다양한 논의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논고에서는 明代 龔信이 제반 병증을 燥熱과 寒濕으로 분류하고 이를 『東醫寶鑑』에서 인용한 예 등을 통해 六氣 관련 개념의 변화 등 燥, 濕 중심의 이론체계가 형성될 수 있는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왔음을 살펴보았다.

그 가운데 특히 燥에 대한 논의들은 燥, 濕 중심의 이론체계가 형성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한 것으로서, 이는 곧 여국패로부터 석수당에 이르는 논의의 핵심적 논점이 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측면으로 언급되어 온 燥의 陰陽 속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일찍이 劉河間이 燥를 風, 熱과 같이 陽적인 속성을 지닌 것으로 분류한 것으로부터 清代의 吳鞠通이 涼燥에 관한 이론을 주장한 것 등까지의 여러 논의들이 축적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燥濕論治의 이론체계 내에서 燥는 하늘에서 火와 짝을 이루는 한편 가을 이후로 陰氣를 품고 하강하는 것으로 설명되며, 이 같은 개념을 통해 먼저 여국패는 겨울철에 특히 燥火가 극성해진다는 것과 같은 새로운 논의를 이끌어 냈고 이후 석수당은 이를 천문이론 등을 통해 이론적으로 체계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References

1. GP Yu. Yili. Beijing. TCM Ancient Books Publishing House. 1987.

- 余國佩. 醫理. 北京. 中醫古積出版社. 1987.
2. ST Shi. Yiyuan. Nanjing. Jiangsu Science and Technology Press. 1983.
石壽棠. 醫原. 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3. T Heo, YS Lee. Classified Utterances of Zhu-zi(translated and annotated in Korean). Seoul. Cheonggye Press. 1998.
허탁, 이요성 역주. 주자어류. 서울. 청계. 1998.
4. Y Shen. Ershiwushi Songshu. Seoul. Kyungin Press. 1975.
沈約. 二十五史 宋書. 서울. 경인문화사. 1975.
5. Yamada Keiji. Translated by SG Kim. Natural Philosophy of Zhuzi. Seoul. Tongnamu Press. 1991.
야마다 케이지 저. 김석근 역. 주자의 자연학. 서울. 통나무. 1991.
6. X Zhu. Chuci Jizhu. Shanghai. Shanghai Chinese Classics Publishing House. 2001.
朱熹. 楚辭集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1.
7. HuangdiNeijing Suwen. Beijing. TCM Ancient Books Publishing House. 1997.
黃帝內經素問.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7.
8. JT Wu. Wenbing-tiaobian. Shijiazhuang. Hebei Science and Technology Press. 1994.
吳鞠通. 溫病條辨.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4.
9. JY Yu. Yimenfalv. Beijing. China Press of TCM. 2002.
喻嘉言. 醫門法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2.
10. X Gong. Gujinyijian. Beijing. China Press of TCM. 1997.
龔信. 古今醫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11. HJ Liu. Huangdisuwen-Xuanminglunfang. JinyuansidajiaYixuequanshu. Tianjin. Tianjin Science and Technology Press. 1992.
劉河間. 黃帝素問宣明論方.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12. HJ Liu. Suwenxuanjiyuanbingshi. JinyuansidajiaYixuequanshu. Tianjin. Tianjin Science and Technology Press. 1992.
劉河間. 素問玄機原病式.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13. ZH Zhang. Rumenshiqin. Tianjin. Tianjin Science and Technology Press. 1999.
張子和. 儒門事親.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14. JY Yu. Yimenfalv. Beijing. China Press of TCM. 2002.
喻嘉言. 醫門法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2.
15. SY Yang. Renzhaizhifang. Shanghai. Second Military Medical University Press. 2006.
楊士瀛. 仁齋直指方. 上海. 第二軍醫大學出版社. 2006.
16. DX Zhu. Gezhiyulun. JinyuansidajiaYixuequanshu. Tianjin. Tianjin Science and Technology Press. 1999.
朱丹溪. 格致餘論.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17. DY Li. Yixuefaming. JinyuansidajiaYixuequanshu. Tianjin. Tianjin Science and Technology Press. 1992.
李東垣. 醫學發明.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18. WZ Chen. Sanyinjiyibingzhengfanglun.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Co. 2007.
陳無擇. 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7.
19. YK Sun. Chishuixuanzhu. Sunyikuiyixuequanshu. Beijing. China Press of TCM. 1999.
孫一奎. 赤水玄珠. 孫一奎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20. JY Zhang. Jingyuequanshu. Seoul. Bubin Publishers Co. 2007.

- 張景岳. 景岳全書. 서울. 法仁文化社. 2007.
21. MY He. Yibian. Beijing. China Press of TCM. 2009.
何夢瑤. 醫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22. XM Zhou, XG Chen. The understanding of dryness and dampness by Xin-an medician Yu Guo-pei. Journal of Beijing University of TCM. 2011. 34(3).
周雪梅, 陳雪功. 新安醫家余國佩對燥濕二氣的認識. 北京中醫藥大學學報. 2011. 34(3).
23. ZJ Chen, HF Deng, SQ Zhai. Trace to the Source about Shi Shou-tang's Academic Thought in Yiyuan. Chinese Medicine Modern Distance Education of China. 2014. 12(10).
陳子杰, 鄧慧芳, 翟雙慶. 石壽棠『醫原』學術思想溯源. 中國中醫藥現代遠程教育. 2014. 12(10).
24. YH Jun. On the Comprehension and Transformation of Western theory of Precession in Seventeenth- and Eighteenth-century East Asia. Korea Silhak Research. 2010. 20.
전용훈. 17세기 서양 세차설의 전래와 조선 지식인의 반응. 한국실학연구. 2010. 20.
25. SS Zhao. Discussion on the Property of “Dryness” of Yin and Yang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nd Its Clinical Significance. Journal of Jiangxi University of TCM. 2013. 25(5).
趙珊珊. 淺論中醫學關於‘燥’之陰陽屬性及其臨床啓迪. 江西中醫學院學報. 2013. 25(5).
26. FJ Meng. Discussion on dryness by four masters in Jin-Yuan Dynasty. Journal of Sichuan of TCM. 2003. 21(11).
孟繁潔. 金元四大家論燥. 四川中醫. 2003. 21(11).
27. B Lian, Y Sun, M Yang. A Brief Analysis on the Contribution of “Yimen Falv” by Yu Jia-yan to the Syndrome on Differentiation and Treatment of Dryness Syndrome. Journal of Yunnan University of TCM. 2009. 32(2).
連博, 孫瑩, 楊梅. 淺釋喻嘉言『醫門法律』燥證辨治之貢獻. 雲南中醫學院學報. 2009. 32(2).